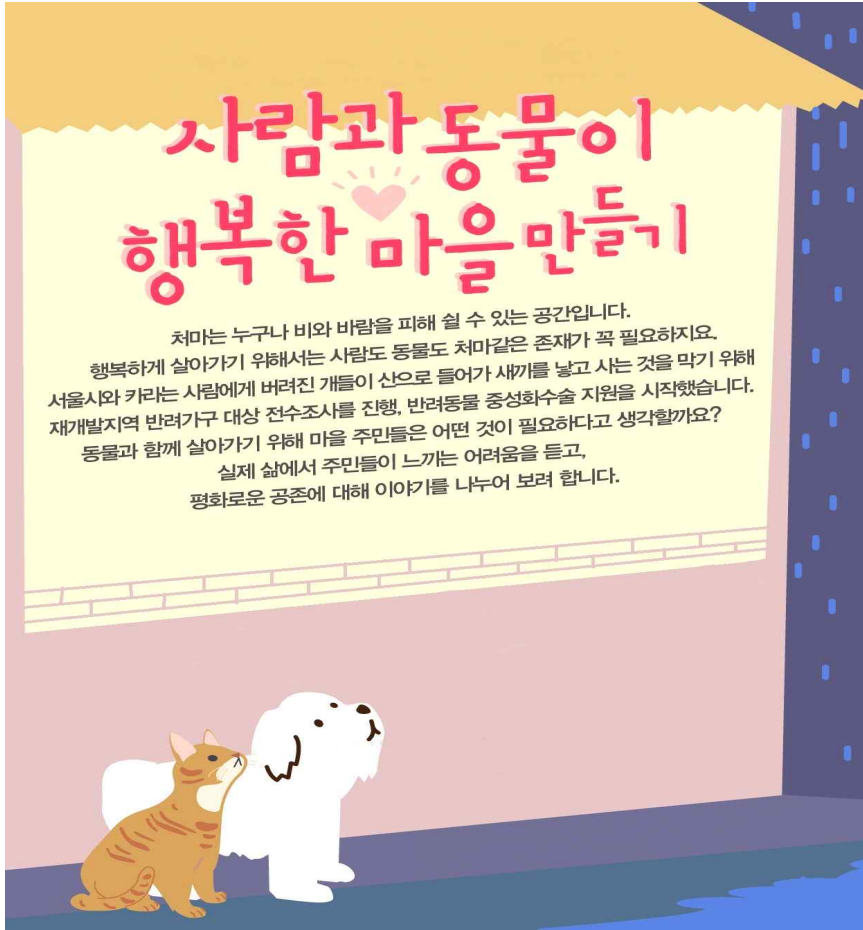


##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민토론회



---

---

---

---

---

---

---

---

---

---

---

---

---

---

---

---

---



---

---

---

---

# 전수조사로 본 재개발지역 반려동물의 삶

- 백사마을을 중심으로 -

김영환(서울시 반려동물중성화센터사업단 조사팀장)

서울시 반려동물중성화센터 사업단은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서울시내 재개발 예정지역 3곳(갈현1구역, 불광5구역, 중계본동 백사마을) 6,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지원을 위한 반려동물 보호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17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신림3구역 삼성재개발지역 500여 가구를 추가 조사하여 총 6,700가구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활동가, 대학교 동물보호 동아리 학생 등 50여명이 조사원으로 참여했으며, 조사원은 충분한 설문조사 교육을 받은 후 대상지역 내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원들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 및 직접 관찰을 통해 재개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람-반려동물의 공존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사진과 메모, 소감문 등으로 기록하였다. 이 글은 조사원들의 기록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 1.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들

### 1) 목적이 무엇인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개/고양이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키우는지에 따라 그들의 처지는 매우 달랐다. 반려 목적으로 키울 경우는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지만, 방범 등 경비용, 번식 판매용, 식용 등 반려가 목적이 아닐 경우 대부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육 환경 또한 열악했다.

## 2) 보호자(반려인)의 동물에 대한 지식/정보는 있는가

보호자가 반려동물 사육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적절한 보살핌에 중요한 요소였다. 일례로, 동물등록 의무,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 좋은 사료, 산책의 필요성,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정보나 지식 정도에 따라 보살핌의 형태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 3) 동물에 대한 인식/태도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였다. 예를 들어, 개식용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길고양이에 대한 쥐약 살포 등 학대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 사람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는 지 등의 문제는 자신의 반려동물 복지·보호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 4) 경제적 여건

병원진료, 예방접종, 사료구입, 미용 등 반려동물 돌봄에는 비용이 든다.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보호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반려동물의 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 5) 시간(여유)

산책, 놀아주기, 병원가기 등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지적된 목적, 지식, 인식, 경제적 여건, 시간 등 다섯 가지 요소들이 충족될 때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했으며, 그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공존 상태가 흔들리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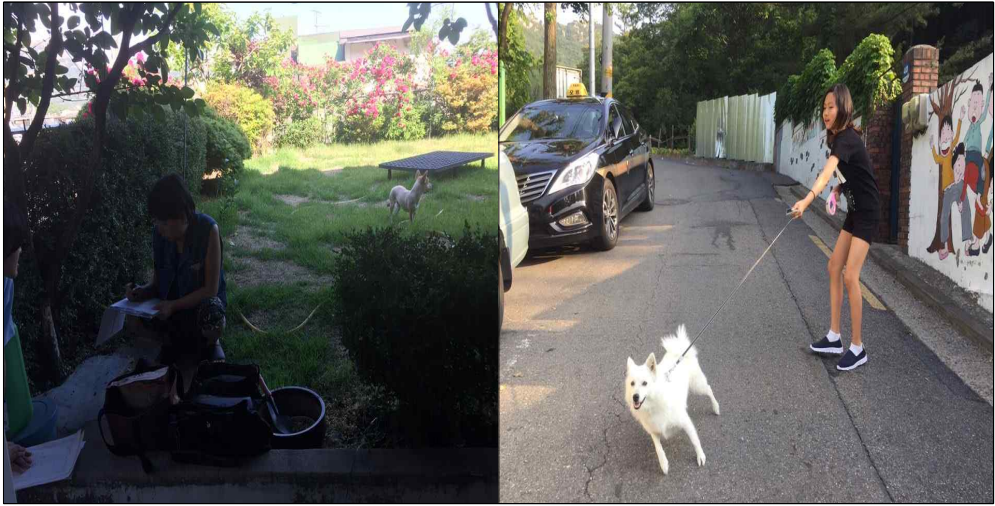
## 2.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 사례

반려견과 산책 하던 도중 길에서 조사원을 만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다수 있었다. 이런 주민들은 대체로 동물과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산책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공존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왜냐하면 위에 지적된 다섯가지 요소, 목적이 반려에 있을 것, 돌봄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있을 것,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건과 시간이 있을 것 등이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산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양이의 경우 ‘도둑고양이’로 대표되는 해롭고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동네 고양이’, 나아가 이름이 있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고양이를로 대접받으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진1> 왼쪽, 반려견과의 산책 도중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백사마을 주민들. 오른쪽, 반려견과의 산책 도중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불광동 주민



<사진2> 왼쪽, 반려견과 함께 집 마당에 나왔다가 설문조사에 응하는 불광동 주민. 오른쪽, 반려견과 산책중인 신림동 주민



<사진3> 왼쪽, 길고양이들에게 마당 한 켠을 내어주고 사료를 제공하는 신림동의 한 주택. 오른쪽, 직접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신림동의 나무 공방



### 3. 백사마을에서 발견한 개선되어야 하는 사례들

조사요원 12명이 방문하여 관찰한 백사마을의 동물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먹이와 사육환경

-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에 가까운 잔반을 급여함
- 개를 10년 동안(평생) 산책 없이 묶어서 키움
- 생활 폐기물 등 중·대형 쓰레기가 쌓여있는 마당에서 대형견 4마리와 새끼 강아지 6마리를 키움
- 집에 강아지만 있고 사람은 살지 않음. 2주에 한번 방문하며, 평소에 밥은 이웃집 할머니가 주고 계심

#### 2)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

- 이미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2마리 중성화 수술을 했고, 동물등록도 알고 있지만 하지 않음
- 진돗개 2마리, 동물등록은 이미 했으나 중성화 수술은 거절함
- 암컷 진돗개 2마리, 중성화 수술 거절함
- 중성화 수술 거절의 주 이유로는, 수컷이라 필요 없다, 자연적으로 키워야 한다, 교미시키지 않는다, 묶어서 키운다, 경비목적이다 등이 거론됨
- 경비 목적으로 개를 키우고, 알아서 구충제를 먹이기 때문에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이 필요 없다고 거절함
- 성견 10마리와 새끼 10마리를 키우는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며 중성화 수술을 거절함

#### 3) 사육 목적

- 집 지키기
- 가게 경비용
- 뱀을 쫓아내기

- 번식하여 새끼 판매
- 식용으로 키우다가, 조사원의 설득으로 경비용으로 키우기로 함
- 설문을 거부했으나, 이웃에 따르면 오래 안 키우고 키우다가 판매 한다고 함

#### 4) 보호자 부재

- 식당을 운영하느라 매일 새벽 1시에 귀가하는 보호자가 있음. 개는 있지만 보호자를 만나지 못해 설문조사하지 못함
- 강아지 3~4마리를 키우는데, 보호자가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 항상 없어 설문조사를 하지 못함
- 진돗개를 오래 키우고 있음. 보호자가 식당에서 일하느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개는 계속 집에 홀로 있음

#### 5) 기타

- 유기견을 입양 했으나 그늘 없는 곳에 묶어서 키우고 있음
- 길고양이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
- 장기간 출장으로 집에 남게 되는 리트리버를 보낼 곳이 없어서 식용으로 판매하려다가 마음을 바꿔 카라를 통해 입양보냄
- 2개월 된 믹스견이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먹음. 먹은 물도 다 토하지만 동물병원에 가지는 않음(또는 못함)

### 4. 백사마을의 동물 문제 분류

#### 1) 반려 이외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들의 상태

##### ● 경비견

개를 반려의 목적이 아니라 집이나 재산을 지키는 경비 목적으로 키울 경우 대부분 문제를 보였다. 경비 목적의 개는 대다수가 야외에 묶어 키우는데, 이로 인해 개들은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된다. 때문에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광견병 등 질병 감염의 위험이 높지만 예방과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적절한 먹이와 물도 제때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개들은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다른 개와의 접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때때로 사회성이 떨어지며,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외로움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묶어 키우는 개들의 스트레스와 사회성 부족은 예기치 않은 경로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의 대부분을 구조하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경우, 중대형 견(흔히 황구와 백구)의 절반 정도가 끊어진 목줄을 맨 채 구조되어 입소한다. 보호자가 야외에 묶어 기르던 개가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줄을 끊고 탈출해 유기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들은 사회성이 부족해 입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절대 다수는 보호 기간 종료 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진4> 경비목적 등으로 야외에 묶어서 키우고 있는 백사마을의 개들



<사진5> 경기도 양주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서울시유기동물위탁소)에 입소된 중형견들. 대부분 끊어진 목줄을 차고 있다. 이들은 주인을 찾거나 입양가지 못하고 대부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

● 식용 목적과 새끼 판매 목적

식용 목적과 번식시켜 새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경우 역시 야외에 묶어놓는 등 부적절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았고, 당연하겠지만 보호자가 강하게 동물등록이나 중성화 수술을 거부했다. 식용 또는 번식 판매의 목적은 그 자체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2) 보호자의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들

● 개/고양이의 특성에 관한 지식의 부족

정기적인 산책, 사회적 욕구의 충족, 위생관리, 적절한 먹이,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 등 보호자가 동물의 특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백사마을에는 활동성이 강한 개의 특성을 모르고 평생 야외에 묶어 키우거나 전혀 산책을 시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위에 기술한 대로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등 질병감염, 피할 수 없는 추위와 더위로 인한 건강악화, 사회성 부족,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묶어 키우는 경우와

반대로, 개를 방치하거나 집 바깥을 배회하게 허용하는 경우(외출견)도 있었는데, 이때도 질병감염의 위험은 존재한다. 중성화 되지 않은 개가 바깥을 돌아다니면 임신 하거나 다른 개를 임신시키는 등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한 2차 문제를 일으킨다. 중성화 된 개가 바깥을 돌아다닐 경우에도 다른 개들과 무리지어 들개화 되거나 교통사고, 유기견 신고로 인한 포획, 식용 목적의 납치 등 여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개를 혼자 외출시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동물을 위험하게 하고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고양이 역시 외출을 허용하면 원치 않는 임신과 함께 고양이 심장사상충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고양이는 개와 달리 심장사상충 치료가 불가능하다.

보호자의 중성화 수술 반대 역시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 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의 절반 정도가 동물을 구입이 아닌 지인에게서 받아오는 점, 그에 비해 반려동물을 죽을 때까지 평생 돌보는 경우는 매우 적은 점, 사회에서 오갈 곳 없는 동물들이 버려져 한 해 최소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엔 너무 많은 동물들이 번식 하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는 한번 출산에 보통 4~5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 개를 잘 돌볼 수 있는 입양자 4~5명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 지인에게 밀어내기 식으로 개를 보내거나 식용 등으로 팔려가기도 한다.

중성화 수술은 유기견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에게도 이로운데, 수컷의 경우 발정 스트레스 감소, 공격성 감소, 비뇨기 관련 질병 예방, 마킹 등 좋지 않은 습관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암컷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수명 연장, 호르몬 관련 질환 예방/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양이의 경우 집에서 키운다 할지라도 중성화 수술을 해야 발정 스트레스와 가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조사 도중 개는 음식물 쓰레기에 가까운 잔반을 먹어도 되는 동물인 줄 알고 부적절한 먹이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는데, 이런 부적절한 음식은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사람이 먹던 맵고 짠 음식물은 개의 위장과 신장 등 장기에 무리를 주며, 부패한 먹이로 인한 세균 감염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개에게는 균형잡힌 사료와 깨끗한 물, 또는 간을 하지 않은 깨끗한 음식과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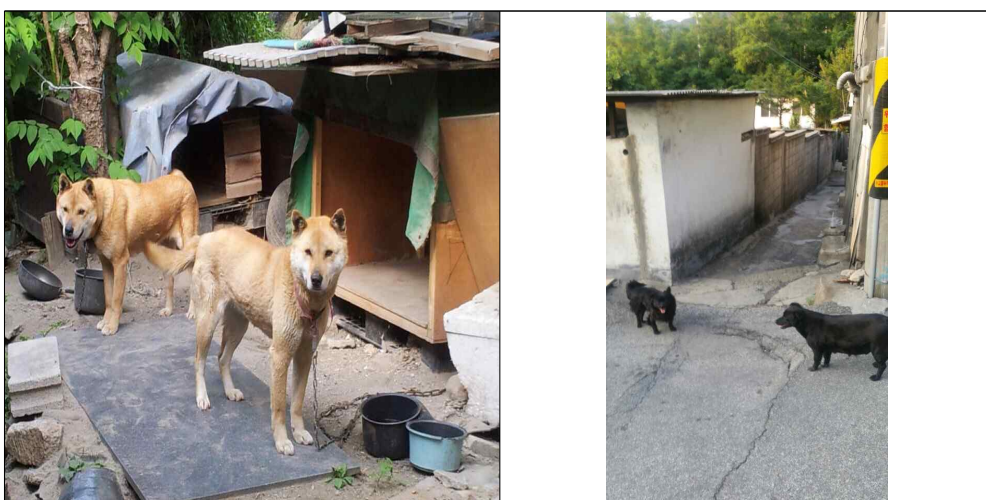
을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목욕이나 미용처럼 위생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등 보호자에게 동물 사육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없을 때 문제들이 발생했다.

◎ 정부의 홍보부족에 따른 법률적인 지식의 무지

동물보호법상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백사마을에선 상당수의 보호자들이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모르고 있었으며, 처벌사례가 없으니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서도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어떤 주민은 길고양이가 싫어서 쥐약 섞은 사료를 풀어놓아 죽일 예정이라고 태연하게 조사원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길고양이를 쥐약을 풀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진6> 왼쪽, 야외에 묶어 키우고 있는 백사마을 반려견들. 오른쪽, 보호자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개들



<사진 7> 쥐약 살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백사마을 길고양이



<사진8> 폐허에 쓰레기처럼 방치된 백사마을의 개들, 오랫동안 굶은 상태로 보였으며 조사요원이 사료를 주자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 3) 동물보호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개는 먹을 수도 있는 동물’이라는 생각, ‘길고양이는 죽여도 상관없는 동물’이라는 인식, ‘사람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는 별개’로 생각하는 등 동물보호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개를 명확히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는 먹을 수 있다’는 잠재된 인식은 키우던 개를 언제든지 식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위협 요소가 된다. 실제로 백사마을의 경우 여름이 다가오니 지금 키우는 개를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으며, 본인이 개를 먹지 않더라도 개식용을 용인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개가 너무 짓거나, 사람을 물었거나, 기타 이유로 키우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 식용이 될 것을 알면서도 개를 팔아넘기는 것은 암묵적으로 개식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

백사마을에선 ‘곰순이’라고 불리는 반려견이 보호자의 장기간 출장 때문에 오갈 곳이 없게 되었는데, 보호자는 지인이 식용으로 자신에게 판매하라는 제안을 듣고 고민하다가 조사원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곰순이는 조사원과 카라의 도움으로 좋은 입양자를 찾았고, 식용이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아람이’라는 이름을 얻고 새 삶을 찾았다.



<사진9> 왼쪽, 잡아먹힐 위기에 처했던 백사마을 곰순이. 오른쪽, 곰순이가 ‘아람이’라는 이름을 얻고 새로운 집으로 입양간 모습

길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길고양이는 죽여도 되는 동물’이라는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서울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무료로 중성화수술 한 뒤 제자리에 방사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길고양이를 줄이기 위해 죽이는 것은 개체수를 줄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조사 도중 어떤 주민들은 ‘사람 살기도 바쁜데 동물복지를 왜 하나’, ‘데려다가 안락사 하면 되지 않냐’며 조사원들에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람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를 상호 경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사람이 먼저, 동물은 그 다음’ 식의 순차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이 그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이다.(이 점은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마을만들기’에서 다룸)

#### 4)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나타나는 문제

백사마을에선 반려견에게 저급 사료와 잔반을 섞어 양을 불린 먹이를 제공하는 집, 반려견이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물조차 토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또는 못하는) 2개월령 믹스견을 키우는 집, 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부담되어 조사원에게 자신의 반려견을 데려가라고 요구하는 주민 등 보호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결국 동물의 사육 포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의 티어하임처럼 사육포기 동물인수 시설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사육을 포기해도 동물을 보낼 곳이 마땅하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 유기견이 될 수도 있고, 산으로 흘러가면 들개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식용으로 잡아먹힐 수도 있다.

#### 5) 동물을 보살필 시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

백사마을의 경우 7일의 조사기간 동안 총 17가구가 집에 개는 있으나 주인이 보이지 않아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다. 동시에 조사한 은평구 갈현동, 불광동 지역에서 도 낮에 반려견만 집에 홀로 있는 가구가 많았다.

개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종일 집에 남겨진 반려견들은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분리불안 등 행동에 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밤 늦게 귀가하는 경우엔 산책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넓게는 1인 가구의 증가, 과도한 노동시간 등 사회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도 함께 변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에선 직원들이 반려견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미국은 아마존과 구글 등을 포함해 전체 회사의 7% 정도가 반려견 동반 출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5년 사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노동자 정보잡지 워크포스는 반려견 친화 정책이 집에 있을 반려견에 대한 걱정 대신 일에 더욱 집중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직원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sup>1)</sup> 캐나다 클레이몬트 대학원 신경경제학 연구팀은 일정 시간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를 한 그룹과 동물과의 접촉을 금지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비교 실험을 통해 “직장에 반려견과의 동반 출근이 허락된다면 타인을 신뢰하고 덜 긴장하며 이러한 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sup>2)</sup> 일본에선 어플리케이션 개발회사 <유레카>가 직원들에게 월 3회까지 수의사와 무료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병원 진료를 위한 연 3회 반일 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업체 <파레이>는 2011년 반려 고양이의 식비를 지원하는 ‘고양이 수당’을 구인광고에 내면서 입사 희망자가 크게 늘기도 했다.<sup>3)</sup>

국내에는 반려동물 용품회사 <대주바이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 <다이노쿨러>, 디자인 전문회사 <얼스디자인>, 건축사무소 <아크166>, 영화수입 배급사 <안다미로> 등이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근제도를 운영하고 있고,<sup>4)</sup> 코스메틱 업체 <러쉬코리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원들에게 반려동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sup>5)</sup>

## 5.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 1) 지방자치단체

- 
- 1) ‘반려견과 함께 출근 살펴보니... “업무 효율성 높인다”’, JTBC 뉴스, 2017.07.23.
  - 2) ‘반려견과 함께 출근시키면 생산성 향상 높아진다... ‘반대는?’’, 동아일보, 2016.03.29.
  - 3) ‘반려동물 생일 주인은 쉬는 날’, 경향신문, 2017.7.23.
  - 4) [카드뉴스] 반려견도 같이 가자~ 반려견과 출근하는 사람들’, 한국일보, 2016.12.26.
  - 5) ‘러쉬, 비혼 직원에게도 축의금·유급휴가 지급한다’, 조선비즈, 2017.06.02.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청에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유기동물을 위한 동물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등 동물보호 정책에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찰 결과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자체가 현장에 뛰어들어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

- 적극적인 반려동물 등록제도 홍보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다. 법률상 의무 사항을 의무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지금까지의 홍보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몰라서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 길고양이를 죽이려는 쥐약 살포 등 명백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 길고양이 TNR 사업 확대와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도입

-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 반려견 산책의 필요성, 적절한 사료 제공, 적합한 사육 환경 소개 등 반려동물 돌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

- 보호자의 건강 악화, 구속,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 등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질 경우를 대비한 동물 돌봄 대책의 마련. 실제로 은평구 갈현동의 경우 한 보호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홀로 남은 반려견을 데려갈 곳이 없어 조사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요양보호사의 노력으로 보호자의 동생이 반려견을 데려갔다.

## 2) 민간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 북미, 유럽, 호주 등 해외의 잘 정비된 반려동물 돌봄정책과 기준을 소개하고, 한국 상황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돌봄기준은 제시하고 사회에 널리 보급

- 동물돌봄 관련 법률 제·개정 운동. 일례로, 개를 하루종일 묶어놓는 행위 금지, 동물 방치 금지, 음식물 쓰레기 급여 금지 등 시민과 함께하는 관련법률 제·개정 운동

- 동물보호활동을 하려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반려동물관련 민간 상담, 시민 교육, 구조동물 응급 지원, 구조동물 입양 홍보 등

### 3) 마을 주민 (백사마을 중심으로)

백사마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백사마을이 대한민국 <동물복지 1호 마을>이 될 수 있다면 마을에도 동물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개>

- 동물등록 100% 마을 만들기 운동
- 중성화 수술 무료지원 시범지역 혜택 누리기
- 보호자 없이 개가 혼자 바깥을 돌아다니지 않게 보호하기
- 저 집 개, 저 사람개에서 동네개로 여기기
- 지역봉사자와 연계한 동물 돌봄 활동: 심장사상충 예방, 진드기 퇴치 등 동네 개 질병 예방 활동, 묶여있는 개나 산책을 시키기 어려운 집을 방문하여 산책 봉사, 목욕 봉사 등 동물 미용 지원,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 봉사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백사마을 산책 코스 만들기
- 들개(산에 사는 유기견) TNR과 공동돌봄

#### <고양이>

- 중성화 수술 무료지원 시범지역 혜택 누리기
- 외출 고양이에겐 인식표 달아주기, 심장사상충 예방약 먹이기
- 길고양이 이름 붙여주기: 도둑고양이 → 길고양이 → 동네 고양이 → 이름 있는 고양이로 만들기 (사진 촬영 후 이름 붙여 마을에 게시)
- 길고양이 TNR과 급식소 설치, 공동 관리

# 해외의 동물보호 마을 사례

한경지(서울시 중성화센터사업단 조사 부팀장)

## 1. 일본

### 1) 아이노시마섬

CNN이 선정한 세계 6대 고양이 스팟(spot) 중 하나인 일본의 섬 아이노시마. 2016년 기준 거주민 284명의 작은 섬에는 사람보다 많은 수의 고양이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섬 곳곳에서 자연과 벗 삼아 여유를 즐기는 고양이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고양이들을 다정하게 식구처럼 챙기고, 고양이들 역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평화로워 보인다.



<사진10> 아이노시마섬의 고양이들

### 2) 다카마츠시 오기시마섬

오기시마는 주민 180명과 고양이 200마리가 함께 사는 작은 섬이다. 쥐잡이로 지역인이나 낚시꾼들이 고양이를 섬에 옮긴 결과로 주민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사는 섬에서 고양이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16년 NPO법인(사회복지법인)의 협력으로 고양이 117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은 급증한 개체 수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를 보는 등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고양이 도살 처분 제로(0)'를 목표로 도살보다는 개체 수를 조절하여 공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오기시마는 고양이로 인해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서 관광을 위한 코스나 시설을 마련하는 등 고양이가 주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11> 왼쪽, 오기시마섬의 고양이들, 오른쪽, 중성화수술 시행 모습

### 3) 오카야마현 키치가하라역

오카야마현 키치가하라역에는 10년간 동물역장을 했던 길고양이 '코토라'가 있었다. 키치가하라 주민들은 1991년 카타카미 철도가 없어지면서 역이 폐쇄된 후 방문객이 현격히 줄어들자 버려진 시골 역사를 살리기 위한 관광자원을 모색하던 중 역사주변을 떠나지 않던 길고양이를 발견했다.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키치가하라역 보존회는 2002년 시범 열차 운행에 맞춰 길고양이 '코토라'를 명예 역장으로 선임했다.

'코토라'의 등장으로 잊혀진 시골역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고양

이 역장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숙박업, 관광업도 생기를 되찾았다. ‘코토라’는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이후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지자체에서 고양이를 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됐다.



<사진12> 키치가하라역 명예역장 '코토라'

#### 4) 치바현 우라야스시

일본의 치바현 우라야스시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의 생활 정보 등을 등록한 스마트폰용 앱 ‘냥더랜드’(ニャンだらんど) 서비스를 시작했다. 포획한 뒤 안락사로 길고양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동네에 사는 길고양이 정보를 알려줘 인근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친근감을 갖게 해 동네고양이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지역에 사는 길고양이를 길고양이가 아닌 동네고양이로 대우하고 동네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우라야스시는 지난 2008년부터 중성화 수술 사업과 배변처리 등 길고양이 관리 사업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아래 진행해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약 160명을 동네고양이 보호가로 등록한 뒤 약 500마리의 길고양이를 동네고양이로 관리키로 했다. 스마트폰 앱에는 오늘의 동네고양이라는 코너에서 동네고양이를 하루에 한 마리씩 소개한다. 또 동네고양이마다 이름, 성별, 나이, 중성화 유무, 사는 지역 등도 표시해 준다. 그동안 시민들이 모아놓은 길고양이 정보가 기반이 됐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동네고양이의 정보와 참여 가능한 봉사 활동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길고양이 수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입양처를 찾는 활동도 하고 있다.



<사진13> 돌봄을 위해 길고양이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용 앱 ‘냥더랜드’



## 2. 대만 허우통

허우통은 대만 최대의 석탄 생산지였지만 석유가 보급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 집에 고양이들이 하나둘씩 터를 잡기 시작했고 마을 이장의 부인이 고양이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서 ‘고양이 마을’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곳의 길고양이들은 사람을 피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거나 길 한복판에 드러누워 단잠에 빠지기도 한다. 소문을 타고 키우던 고양이를 일부러 유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허우통의 사람들은 고양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집을 만들어주는 등 고양이 친화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한해 50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사진14> 모두 이름이 있는 대만 허우통의 길고양이

## 3. 국내

평택 제천고속도로 천등산휴게소에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이 ‘천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휴게소 직원들이 휴게소 화장실에서 6살 정도로 추정되는 유기견을 발견하고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냈으나 주인이 찾아오지 않아 안락사 위기

에 놓이자 입양해 기르기로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돌보기 시작했다.

천등이는 단골 이용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일부러 천등이를 보러오는 사람이 생기고, 천등이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스타가 돼 휴게소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다.



<사진15> 천등산 휴게소에 버려졌던 유기견이 휴게소의 마스코트로 거듭나다

## 부록: 해외 반려동물 돌봄 관련 정책

<표1> 해외의 동물보호정책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마리 수 제한	판매업
독일	1. 의무 3. 매년 갱신	1. 유기동물 보호소 의무	제한 있음	1. 등록 허가제 2. 사육두수 및 번식횟수제한
미국	1. 의무 2. 매년 갱신	1. 일부시 의무화 (LA, 뉴욕 등) 2. 수의사회에서 정책적으로 권고 3. 지정 병원에서 중성화수술 할인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한 있음	1. 면허필요 2. 사육두수 및 번식횟수제한
일본	1. 의무 2. 매년 갱신 3. 생후 90일 이후 4. 변경, 사망 신고 의무	번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중성화 수술 의무	제한 있음	1. 등록 허가제 5년마다 갱신 2. 사육두수 및 번식횟수제한
대만	1. 의무 2. 생후 4개월 이후 3. 변경, 사망 신고 의무			1. 등록허가제 3년마다 갱신 2. 사육두수 및 번식횟수제한

### 1) 독일

독일은 1986년 동물보호법 1조를 개정하면서 인간과 동물은 같이 살아가는 동료로서 인간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의 종에 맞게 먹이, 돌봄, 안식처를 제공해야 하며, 종 특성에 따른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동물 케이지의 최소 면적은 체고(서 있는 상태에서 지면부터 등까지 높이) 50cm까지는 6㎡(약 1.8평), 65cm 이상은 10㎡(약 3평)이다. 개는 바깥에서 운동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접촉이 가능하도록 보호자는 신경을 써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주 이전의 강아지는 어미로부터 떼어놓아서는 안 되고, 바깥에서 한 장소에 묶어둘 경우에도 최소한 앞으로 6m, 옆으로 5m 정도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 끈의 넓이도 적당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묶어두거나, 장시간 빈 집이나 방에 혼자 가두어 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독일은 동물을 때리고 괴롭히는 물리적인 행위 뿐 아니라 방치하고 가두는 행위도 학대로 규정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가형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한다. 실제 반려견을 일정시간 동안 격리된 공간에 분리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크레이트 훈련’도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한다.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보호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를 수 있는 마리수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험한 개가 아닐 지라도 보호자는 개가 일정한 연령(주에 따라 3-6개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Hundesteuer)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금이 동물 보호소에 사용된다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 개 세금은 지역이나 개에 따라 차이가 난다. 1년에 90~600유로(약 11만~78만원)로 다양하다. 등록을 한 경우 개에게 허가증(신분증)이 발급되고, 신분증을 달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없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포탈죄’를 적용해 보호자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법은 보호자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반려견이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다루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각 주의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도, 상점, 도심, 군중이 많이 다니는 도로 등에서는 개가 특별히 흥분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줄을 매도록 하며, 울타리가 없는 공원,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에도 목줄을 의무화 하고 있다.

## 2) 미국

미국 대부분 주의 법으로 ‘방치로 인한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료, 물, 집 등 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고된 동물학대사건 중 30%가 방치였다.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동물이 12시간 이상 사료와 물을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누구라도 합법적으로 사료와 물을 주러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고, 이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동물을 실외에서 기를 때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놓았다. 보호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방수와 통풍이 되고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을 제공해야 한다. 또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첫 번째는 50달러(1달러=한화 약 1117원) 이상 100달러 이하, 두 번째부터는 100달러 이상 2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을 묶어두는 행위도 미국에서는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 19개 주 89개 도시에서는 동물을 이유 없이 묶어놓는 행위를 금지했고, 159개 도시에서는 묶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워싱턴 주는 동물이 숨이 막히거나, 음식, 물, 그늘, 마른 땅을 찾을 수 없거나 위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묶어 놓는 것을 '잔인하게 묶어놓는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미시간 주는 개를 묶을 수 있는 줄의 길이를 '몸길이의 3배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고, 텍사스 주는 동물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 동안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개들은 모두 해당 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미등록 처벌규정으로 4~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는 등록시 광견병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에 대한 서류를 내야하고,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지 않을 시 접수비용이 4배 높아진다. 또한 매년 등록 시와 동일한 비용을 내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 3) 일본

동물이 생명이 있음을 감안하여 누구도 동물을 함부로 살해, 상해,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며,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배려하고, 습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제정의 목적, 기본 원칙, 동물애호주간의 제정, 동물취급업자의 규제, 주변생활의 보전, 동물에 의한 위해의 방지, 애호동물의 가혹한 살상·학대 및 유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동물의 가혹한 살상, 학대, 유기 금지 법안은 보호동물을 살해, 유기, 학대한 자에 대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이르기까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경우(신고의무 위반)에는 최고 2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동물에게 먹이나 물을 주지 않아 쇠약하게 함으로써 학대하거나 함부로 동물을 유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일본도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미등록 상황이 적발될 경우 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 개의 소유자는 개를 취득한 날(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취득한 경우에는 생후 90일을 경과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

소(법인은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2)개의 소재지 (3) 개의 종류, (4) 개의 생년월일, (5) 개의 털색갈, (6) 개의 성별, (7) 개의 이름, (8) (5) 이외에 개의 특징이 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장(특별구에서는 특별구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원부에 등록을 받아 개의 감찰(鑑札)을 교부받아야 한다.

#### 4) 대만

대만의 동물보호법은 2017년 4월 개정이 되었다. 동물의 보호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물을 먹이는 사람은 적절한 음식과 물, 그리고 환경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수의학적인 치료도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과 학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동물을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되며 안락사가 전면 금지되었다.

개들의 등록을 위해서 마이크로 칩 장착과 이름표 부착이 의무이다. 위반한 경우는 최대 25만원(약 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나 고양이를 사고팔거나, 사체나 사체를 이용해 만들어진 음식이 적발될 경우 5만~25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가해자는 이름과 얼굴이 대중에 공개된다. 반려동물을 차나 오토바이 등에 매달고 달리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만5000 대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20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을 받는다.

# 동물복지와 주민복지의 연관성

김성호(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가 되면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촛불대선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치러진 대통령보궐 선거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동물복지에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유기견이 청와대 퍼스트독이 되면서 반려견과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TV만 틀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뉴스가 나온다. 반려동물관련 산업이 블루오션이 되어 대기업과 벤처기업들까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한편으론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들의 비참한 현실이 보도되기도 한다. 해마다 10만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여름이면 복날 개식용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대립한다. 동물학대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이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함께 살도록 길들여져 왔고, 어떤 형태로든 동물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 그 사회에서 동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할 것인가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주제이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이다. 동물의 삶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다른 비인간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복지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동물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동물들의 복지와 권리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속에서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상호돌봄’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1.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변천사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마도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다

음의 몇 가지 사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동물은 인간을 위해 음식, 소품, 노동, 유희를 제공하는 상품(수단)이다.
2. 동물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의 대상이다.
3. 동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원이다.
4. 동물은 인간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연세계의 존재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관해서는 몇몇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다수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인간과 동물의 중요한 차이는 이성의 소유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로크, 칸트 등은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성의 소유로 보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이 없는 동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데카르트는 동물을 ‘영혼이 없는 기계’로 비유하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내는 비명소리는 언어가 아닌 자연적인 동작이며, 시계의 태엽소리 같은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인간을 동물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이해하고, 그 결과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이용하며, 학대와 살생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인에게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편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지닌 동물에게 관대하게 대할 것을 주장한 철학자들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악마이다. 그리고 동물은 그 악마에게 끊임없이 희생당하는, 불쌍한 영혼이다”라고 했다. 흄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물에게도 이성, 감정, 도덕성이 있다고 보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은 단지 사회의 덕택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동물복지나 동물의 권리에 대해 주장한 학자들이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윤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철학자는 공리주의로 유명한 제레미 벤담을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이다.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가축의 고통이 극대화 되는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고 동물의 전체적인 고통을 줄이는 복지형축산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톰 리건(Tom Regan)이나 마크 롤랜즈(Mark Roelands)는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역설한다. 즉, 쾌락과 고통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자신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개체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



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이 고통과 쾌락을 느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동물복지론이나 동물권리론 모두 인간중심적 이분법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2003년 그녀의 저서 ‘반려동물 선언’(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을 통해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인간 대 동물(자연)’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공생(co-habitation), 공진화(co-evolution), 자연문화(natureculture)의 형성으로 설명한다.<sup>6)</sup>

## 2. 인간과 동물의 관계

### 1) 동물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최근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인 경우가 많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인간과 척추동물간에 병원체가 서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칭한다.<sup>7)</sup> 현재까지 약 250종의 인수공통전염병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중요한 전염병은 약 100여종에 이른다. 최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 뿐 아니라 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나 코로나바이러스, 탄저, 브루셀라증, 광견병(공수병), 일본뇌염, SARS(중증성호흡기증후군), HIV/AIDS 등도 인수공통전염병에 해당된다. 특히 AI는 직접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에볼라와 달리 공기 감염이 가능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중 1997년 홍콩에서 발견되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확산된 H5N1형 바이러스, 2013년 중국에서 발생한 H7N9형은 치사율이 38%~60%에 이른다. 축산업에

6) ‘동물과 인간사이, 그 철학적 질문들과 문화적 실천’, 이동연, 문화과학, 2013년 겨울호 (통권 제76호), 문화과학사, 23~51쪽.

7)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은 척추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사람으로부터 척추동물에게 전파되지는 않는 전염병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사람으로부터 동물에게 전파되고 전염병은 ‘Zooanthroponoses’라고 하며, 사람과 동물 사이에 병원체의 상호 전파가 일어나는 전염병은 ‘Amphixenoses’라 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의 현황과 관리대책’, 박기동,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학술발표초록집, 대한의사협회, 2006, 679~686쪽.

종사하는 사람은 브루셀라증(brucellosis)을 조심해야 하며 ‘광견병’은 rabies virus(광견병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에게 물려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는 더디지만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최근 발생하는 전염병 가운데 75%가 사람과 동물을 함께 감염시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이와 같은 질병은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sup>8)</sup>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를 통해서 사람이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어온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는 단지 가축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비윤리적 사육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만이 아니다. 동물의 권리는 차치 하더라도 그 고기를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좁은 우리에 갇혀 땅 한번 밟지 못하고 햇볕 한번 쏘이지 못한 채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며 항생제로 생명을 이어온 닭, 돼지, 소를 먹는 인간이, 풀 대신 옥수수만으로 만든 사료로 길러진 소를 먹은 인간은 건강할 수 있을까? 실제로 공장식 축산은 여러 종류의 만성질환과 암, 그리고 면역질환의 원인이 되며 식중독, 신종 전염병, 호르몬 이상 등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물 부족, 기근, 기아, 전염병 등 생태계와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 실제로 AI 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공장형 집단 사육에 있다.

## 2) 동물에 대한 폭력은 인간에 대한 폭력의 씨앗

동물학대에는 동물을 때리고, 죽이는 등 직접적인 학대와 동물에게 필요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간접적인 학대가 있다. 2008년 개정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도 적절한 사육환경 및 관리를 제공하고, 동물학대를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명시하는 대표적인 5가지 동물의 자유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생리적인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상해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동물 특성에 맞는 행동양식을 따를 자유’ 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식 축산은 이 같은 동물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찰스 패터슨은 현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동물을 노예처럼 여기고 학대하며 도살하는 방식은 나치의 대량학살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다.<sup>9)</sup>

<sup>8)</sup> ChosunBiz.com. 인류, 동물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감염병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4/2014080401959.html#csidxbe70507db3bfab3982c347905365b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4/2014080401959.html#csidxbe70507db3bfab3982c347905365bef)

한편 동물에 대한 학대는 사람간의 학대와 폭력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우선, 동물학대는 가정폭력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아동일수록 정서장애나 인격적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진다. 한편 성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가정 내의 아동의 인성, 특히 폭력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는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고, 아내와 반려동물에게 폭력적인 남자에게 태어난 자녀가, 다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높다. 이처럼 동물에 대한 학대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

### 3) 동물은 생태계의 경고등이다

예전에는 광산에서 광부들이 갱도에 들어갈 때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유독 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 새를 함께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 카나리아라는 새는 유독가스에 민감해서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에 카나리아가 죽으면 광부들이 서둘러 갱도를 탈출했다고 한다. 생태계에서 동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위협으로 나타나기 전에 동물이 그 위험을 먼저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미나마타 병을 들 수 있다. 미나마타 병은 수은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며, 이와 유사한 공해병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 현의 미나마타 시에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sup>10)</sup> 1956년에 첫 환자가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당시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대규모 수은 중독 사태로 발전했다.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된 환자만 2,265명이고 비공식적인 환자는 수만 명에 이른다. 바다로 무분별하게 방류된 화학물질이 유기수은이라는 부산물을 생성하고 이는 생태계를 따라 대규모로 농축되었다. 그로 인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어패류를 섭취한 사람들의 몸에 유기수은이 축적된 것이다. 유기수은에 중독된 사람들은 시각장애, 사지마비, 정신이상 등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전에 먼저 고통을 경험한 생명

9) 찰스 패터슨, 정의길 옮김, 『동물 홀로코스트』(2014). 휴.

10)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B%82%98%EB%A7%88%ED%83%80\\_%EB%B3%91](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B%82%98%EB%A7%88%ED%83%80_%EB%B3%91)

체가 있었다. 바로 그 지역의 생선을 먹은 고양이들이다. 수은중독으로 인해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장애를 일으키고 결국은 죽기 시작해서 그 지역의 고양이가 전멸한 것이다. 이후 지역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모두 잃고 말았다.<sup>11)</sup> 생선의 수은중독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실례로 미국생선오염교육협회 [Fish Contamination Education Collaborative (FCECO)] 는 미연방환경보호국 [USEPA]의 감독 하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생선 섭취를 제한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sup>12)</sup> 공장식 축산을 통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듯이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아파하는 동물이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동물들이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농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유럽을 시작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관심과 시행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정해서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도록 규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sup>13)</sup>가 시행되고 있다.

#### 4)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역사적으로 동물은 인간에게 먹을 것, 노동력, 상품을 제공해왔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그 방법과 대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의 특수한 능력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장애인을 돕거나, 마약을 탐지하고, 암과 같은 병을 진단하는 특수 목적을 위해 훈련되고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동물의 특수한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의 복지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HAB(Human and animal bond)는 동물과 사람과의 교감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데, 다수의 연구 결과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동물매개치료 (animal-assisted therapy, AAT)이다. 정신건강센터, 병원, 노인요양원 등 다양한

11)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시무레 미치코의 “슬픈 미나마타” (2010, 김경인 옮김, 달팽이 출판사)를 참조하라.

12) [www.PVSfish.org](http://www.PVSfish.org)

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농장 동물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곳에서 동물을 치료도우미로 활용하여 환자들이 동물과 교감을 통해 신체, 정서,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동물매개활동(Animal assisted activities, AAA)은 비장애 아동을 비롯한 자폐아동 등을 대상으로 감성교육, 사회화 교육, 오락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동물매개치료가 동물을 인간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경우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윤리적 딜레마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동물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sup>14)</sup>

## 5) 사람과 동물의 ‘상호돌봄’의 사례

동물과 사람 간에 끈끈한 감정을 의미하는 ‘인간과 동물간의 유대감(Human and animal bond, HAB)’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상호돌봄이 가능하다. 이는 동물을 이용해서 사람의 복지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서로 돌보고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돌봄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나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 - 유기견과 어린이 : 유기견에게 책 읽어주기

동물전문매체 도도와 바크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의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보호소 친구들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유기견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기획했다. 이는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치고 약한 동물에게 동정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두려움이 많은 개들도 사람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6~1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

<sup>14)</sup>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동물매개치료 시 준수해야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기도 한다. 첫째,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사람만이 동물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반드시 자발성에 의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넷째,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 모두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Iannuzzi D. & Rowan, A. N. Ethical Issues in Animal-Assisted Therapy Programs. ANTHROZOOS 1991 Winter; 4(3): 154~163p.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보이는 증상들을 미리 알려준다. 개에 대한 지식과 책 읽기 훈련을 받은 어린이들은 유기견들 앞에 앉아 책을 읽어준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개들이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 앞에 접근하거나 관심을 보이면 아이들은 개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칭찬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훈련이 반복되면 개들은 입양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올 수 있고 입양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책 읽기 프로그램은 소심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개뿐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는 개들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분하는 개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또 유기견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버려진 동물의 입장이 어떨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며, 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영국 노샘프턴셔 메이필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개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감정이나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개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이후 책 읽기 능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sup>15)</sup>



<사진16> 유기견에게 책 읽어주는 어린이들 (출처 한국일보)

- 노숙자와 반려동물

마약중독 노숙자가 된 음악가가 길거리 고양이를 운명처럼 만나서 우정을 쌓고

<sup>15)</sup> 유기견에게 책 읽어주는 ‘별난 봉사활동’. 한국일보. 2016.03.02.  
<http://www.hankookilbo.com/v/bda32059bac14a408bac0acda3ed143a>

서로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국의 실화는 ‘A street cat named Bob’이라는 소설과 동명 영화로(한국 개봉 당시 제목은 ‘내 어깨 위의 고양이’) 소개된 바 있다. 런던 길거리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가난한 저자에게 반려동물이야말로 가장 필요 없는 존재였지만 길고양이 ‘밥’은 저자에게 곧 전부가 되었다. 마약중독자, 노숙자,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길거리 음악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던 저자의 품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도도한 표정의 고양이 ‘밥’이 황폐했던 저자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서로 돌보고 돕는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sup>16)</sup>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길거리 뮤지션 ‘제임스’는 상처 입은 길고양이 ‘밥’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제임스’는 전 재산을 털어 ‘밥’을 치료해준 후, 다시 길거리 생활로 돌아가지만 ‘밥’은 자꾸만 그의 앞에 나타난다. 이를 운명이라 생각한 ‘제임스’는 결국 ‘밥’과 함께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고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와 마주하게 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아주 특별한 동거를 이어나간다.<sup>17)</sup>



<사진17> 영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홍보사진

이외에도 미국 뉴욕에 있는 동물 전문사진업체 포도그래피(phoDOGraphy)가 영

<sup>16)</sup> 제임스 보웬 지음, 안진희 옮김, 『내 어깨 위 고양이 Bob 한 남자의 영혼을 바꾸다 (2013), 페티앙북스

<sup>17)</sup>

<https://namu.wiki/w/%EB%82%B4%20%EC%96%B4%EA%B9%A8%20%EC%9C%84%20%EA%B3%A0%EC%96%91%EC%9D%B4%20%EB%B0%A5>

국 런던 거리의 노숙자와 반려견의 특별한 사연을 사진으로 전한 바 있다. 그 중 한 사례인 노숙자 샘은 5년 전, 강아지 ‘프린세스’를 거리에서 발견했다. 프린세스는 그 뒤 샘이 길거리에서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수호천사가 되어 잠을 잘 때에도 샘과 프린세스는 서로에게 눈과 귀가 되어준다.<sup>18)</sup>



<사진18> 노숙자 샘과 반려견 프린세스 (출처 한국일보)

#### - 반려동물과 노인

영국 웨일즈에 위치한 시나몬 트러스트(The Cinnamon Trust)에서는 노인들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마지막 생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과 반려동물을 함께 보살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동물을 잠시 이용하는 동물매개치료 방식이 아니라 24시간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주인들과 함께 노력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나몬 트러스트에서는 약 1만 5천명의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그들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나 노인을 대신해서 반려견을 목욕시키거나 산책시켜 준다.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진료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고양이 돌보거나 새장을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인과 환자들이 반려동물을 접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돌봄, 위안, 안전, 사랑, 평화 등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나몬 트러스트에서는 한

<sup>18)</sup>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노숙자와 반려견들의 우정. 한국일보. 2017.01.09.  
<http://www.hankookilbo.com/v/4002cbe121cc450b88c404cd4d7b957a>



해 32,142명과 41,342마리의 동물에게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19)</sup>

- 반려동물과 장애인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는 모르쿠오증후군이라는 난치성 희귀 질환으로 잘 걷지 못하는 벨라 버튼이라는 소녀와 그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있는 반려견 조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목발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벨라의 삶은 60kg이 나가는 대형견 ‘조지’를 만나고서 완전히 달라졌다. 벨라는 조지를 만난 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자전거도 탈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키가 큰 조지는 벨라가 목발대신 의지할 수 있고, 덩치가 커서 주변사람들로부터 벨라를 보호할 수 있었다. 벨라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된 ‘서비스 도그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벨라가 유기견 센터를 방문했을 때, 먼저 벨라를 알아보고 안긴 것은 바로 조지였다고 한다.



<사진19> 벨라와 조지 (사진출처, [www.wimp.com/](http://www.wimp.com/))<sup>20)</sup>

### 3. 백사마을이 동물복지마을로 전환될 수 있을까?

<sup>19)</sup> <http://www.cinnamon.org.uk/home.php>

<sup>20)</sup> <https://www.wimp.com/disabled-child-loves-her-great-dane/>

지난 십여년간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우리는 소형주택 위주의 전통 마을이 사라지고 아파트로 획일화된 뉴타운에서 원주민은 쫓겨나고 건설사와 투기 세력에게만 이익이 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대안적인 재개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성북구의 장수마을이다. 2004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낙후지역이 철거 대신 주민참여형 재생의 길을 모색하여 역사성을 살린 마을공동체로 거듭난 결과 마을 재생사업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관이 협력하여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노력이 줄을 잇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 물만골, 대전시 판암동의 무지개 프로젝트, 그리고 제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 등이 그 사례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육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인 가양동의 ‘육아협동조합’, 흥은동의 ‘청년협동조합’,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등이 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동물과의 공생을 주제로 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도는 전무하다. 서울시 강동구가 실시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나 동물보호를 위한 일부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재개발지역의 중요 주제는 아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백사마을이 향후 재개발 되는 과정에서 동물과 함께 행복한 마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사마을에는 사람과 반려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 유기되고 방치되는 반려동물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거두고 보살피는 반려동물의 수가 어느 지역 보다 많다. 주민들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측은지심이 강하다는 것은 자발적인 동물복지, 혹은 동물과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백사마을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며, 담이 없는 집들도 많다. 떠돌이 개와 길고양이를 공동으로 보살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길고양이에게 급식소를 설치하고 돌보는 자치구나 지역조직이 늘고 있지만 주민 다수가 관심을 갖고 돌보는 마을은 아직 없다. 대한민국 마지막 달동네라는 상징성과 관심, “동물복지마을”이라는 희소성과 잠재성이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백사마을은 지역자원 연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오던 곳이다. 마을 중심에 자원봉사 캠프가 자리하고 있고, 연탄은행을 비롯한 자원봉사와 자원 나눔이 365일 이루어지는 마을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강점을 지닌 노원구청과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들의 협력이 가능한 곳이다. 노원구청, 중계본동 등 지역 관청과 선출직 공무원

들의 관심도 높다. 또한 ‘노길사’라는 지역사회 동물보호 시민단체가 수년전부터 지역주민들과 길고양이 TNR 사업 등 동물보호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고,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이 길고양이와 길개들을 보살피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길고양이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러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관심에 더해서 지역자원과의 협력 가능성이 무척 높다.

오늘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주민토론회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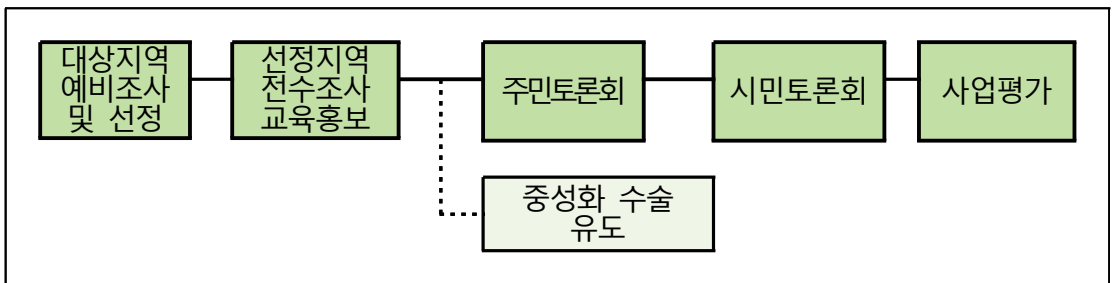
---

# 재개발지역 전수조사 사업 개괄

## 1. 사업개요

재개발지역 전수조사 사업은 서울시의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동물유기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은 서울시 중성화센터의 설립과 재개발지역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물 등록과 중성화수술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반려동물 유무와 중성화수술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술과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수술신청서를 받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술 및 동물등록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다. 물론 조사와 더불어 해당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캠페인이 병행되도록 하였다.

## 2. 전체사업의 흐름



## 3. 전수조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5.29. ~ 6.10.
- 대 상 지 : 서울시내 재개발 예정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 취약지역
- 사업규모 : 총6,000여 가구
  -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갈현1지역) 239,247㎡

- 은평구 불광동 245번지 일대(불광5지역) 117,191㎡
- 중계본동 중계동 30-3 일대(백사마을) 18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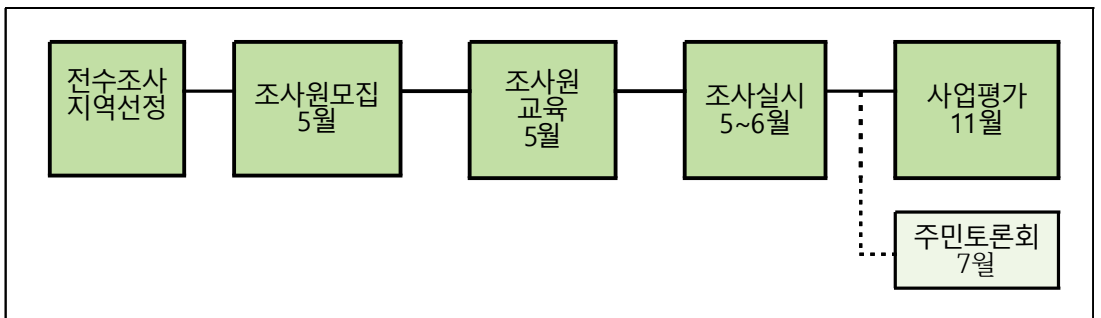
#### 4. 사업목적

-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된 반려견이 인근 야산에 살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번식력이 뛰어난 개의 특성상 한번 야생화되면 근절이 어려워지고 있어,
- 재개발지역 등 유기동물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해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중성화의 필요성을 교육·홍보하여 동물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 5. 사업목표

- 대상지역 내 조사된 총 수술대상의 50% 가구의 중성화수술 신청
- 반려동물 사육가구에 동물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주민교육 4회 실시)

#### 6. 추진과정



## 1) 지역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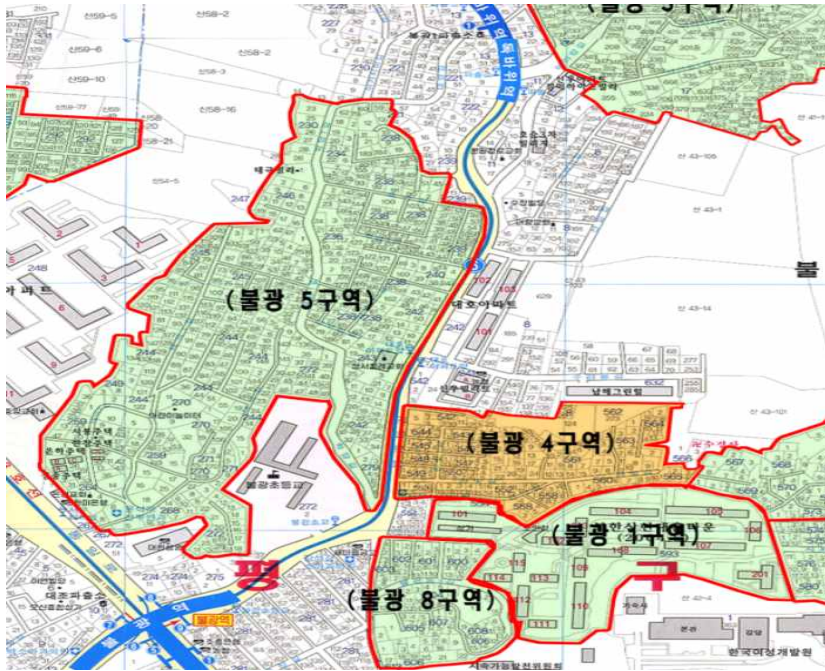
○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산과 인접한 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선정하였다. 은평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갈현동이 1,300여 가구였으나 실제로는 3,000가구가 넘어, 애초 목표인 4,000여 가구보다 2,000여 가구가 증가된 총 6,000여 가구를 1차로 조사하였다.

-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갈현1지역) 239,247㎡
- 은평구 불광동 245번지 일대(불광5지역) 117,191㎡
- 중계본동 중계동 30-3 일대(백사마을) 18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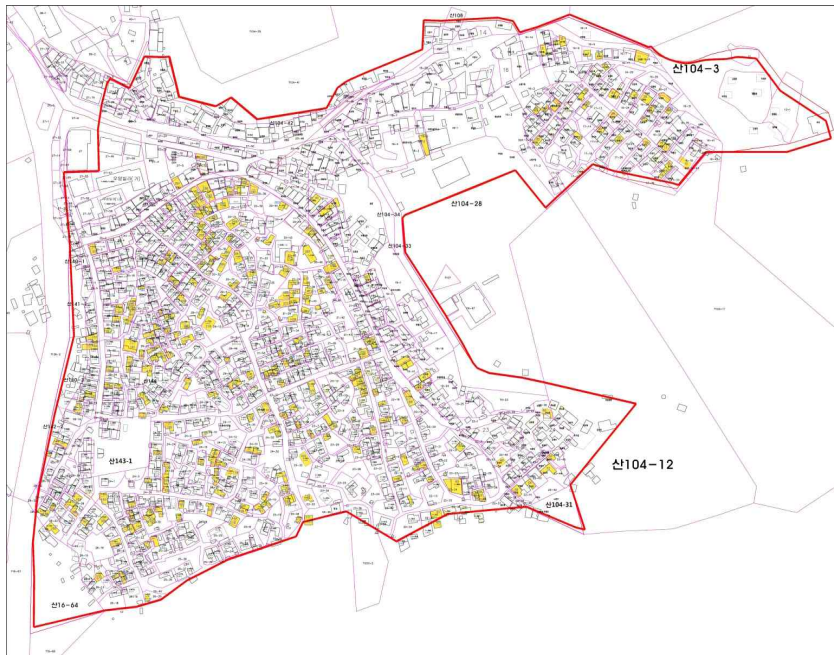
### 갈현1구역



불광5구역



백사마을





- 여기에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재개발지역 명단에 없는 지역이지만 서울대에서 들개가 포획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곳도 재개발지역이 있었고, 그곳이 관악산 및 시흥, 안양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사지역에 추가하게 되었다. 특히 관악구는 예산배정이 끝난 상태에서 삽입되었던 관계로 관악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6명의 자원봉사로 지역조사가 이루어졌다.

- 관악구 신림동 삼성재개발지역(신림 2~3지역)

- 따라서, 애초 목표인 4,000여 가구의 배가 넘는 7,000여 가구를 조사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동물관련 전수조사의 최대치에 해당한다.

## 2) 조사원 모집

- 카라의 홈페이지와 해당 지역 커뮤니티, 동물 및 환경관련 단체, 녹색당 등 평소 동물의제에 관심이 있는 곳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고, 70여명이 신청하였다.

- 신청자 중에 지역 근접성, 동물관련 활동, 조사경험 등을 고려하여 55명(예비 포함)을 선정하였다.

## 3) 조사원 교육

- 5.25. 선정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목적, 조사원의 태도와 윤리, 설문지 이해, 홍보물 이해, 조사의 실재 등을 주제로 4시간여에 걸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20> 전수조사원 전체교육



<사진21> 전수조사원 지역별 교육

#### 4) 조사실시

- 5월29일~6월7일까지 2인1조로 오후4시~8시까지 하루 4시간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갈현, 불광, 백사 3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다.
- 예상보다 3배가 많았던 갈현지역은 추가 인원이 투입되었다.
- 반려동물이 없는 가구는 홍보물만 전달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는 설문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설문에 응했을 경우, 답례품으로 사람용 티셔츠와 동물용 용품을 전달하였다. 두 종류 모두 품질이 우수하여 반응이 좋았고, 답례품을 받고자 설문에 응한 사례도 많았다.

○ 반려동물이 동물등록,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중성화수술을 권하였고, 응한 사람에게 개와 고양이를 별도로 수술신청서를 받았다.

<사진22> 전수조사원 조사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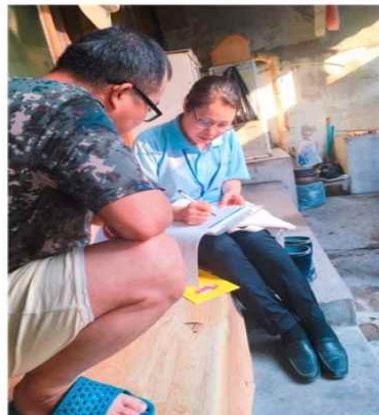
전수조사 하러 출발하는 불광동 조사원들



설문응답을 받고 있는 조사원



출발 직전 파이팅 하는 백사마을 조사원들



설문지 응답을 받고 있는 조사원



조사 마지막날 갈현동 조사원들



출발전 맡은 지역을 지도로 확인하는 조사원들

## 전수조사 설문결과

조사는 해당지역의 6,775가구(재개발을 이유로 집을 비운 가구를 제외한 6,342가구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그 중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구는 765가구(12.1%)였고, 그중 505가구가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표2> 반려동물(개/고양이) 전수조사내용

지역 항목	갈현1구역	불광5구역	중계본동 백사마을	관악구 신림3구역	계
전수조사 가구수	3,474가구	1,840가구	943가구 중 510가구 <sup>21)</sup>	518가구	6,775가구 중 6,342가구
반려동물 양육가구수	434가구 (12.5%)	194가구 (10.5%)	99가구 (19.4%)	38가구 (7.3%)	765가구 (12.1%)
설문응답 가구수	271가구	134가구	77가구	23가구	505가구
응답한 가구의 반려동물 수	개271마리 고양이97마리	개145마리 고양이 45마리	개 141마리 고양이 31마리	개27마리 고양이 7마리	개584마리 고양이 180마리

본 조사의 큰 의의는 재개발 지역을 전수 조사했다는 것이다. 즉, 조사 대상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를 가려 낸 뒤, 그 가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관련 주요 조사는 농림축산부가 실시한 ‘2015 동물의 등록, 유기동물관리 및 동물보호, 복지 실태조사’와 서울시가 실시한 ‘2017 서울서베이 사회상조사’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민간분야에서는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이라는 보고서에 포함된 반려동물 현황과 관련된 조사가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한 본 조사와는 달리 전체 인구 중 표본을 선택하여 조사를 진행했기 기존의 조사결과들과 단순 수치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주요 변수별 경향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고 사료된다.

21)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실행이 계속 지연되는 관계로 집을 비운 가구가 거의 절반(430여 가구)에 이른다.

## 1. 주요 조사결과 요약

-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 수의 비율이 12%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반려동물 사육 가구 비율의 편차를 보였는데 백사마을이 19%로 가장 높고, 불광 지역이 10.4%로 가장 낮았다 (관악구 제외)
  - 반려견의 경우 ‘1마리’를 기르는 경우가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마리’인 경우가 18.9%였다. 한편 10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복수 응답 포함)는 지인을 통해 받은 경우가 54.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돈을 주고 산 경우(28.17%),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20%) 순으로 나타났다.
  
- 동물 등록을 실시한 반려견의 수는 등록여부가 확인된 개체수 총 547마리 중 207마리(37.8%)였으며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반려견의 수는 수술여부가 확인된 개체수 총 553마리 중 211마리(38.1%)로 나타났다. 동물등록률과 중성화 수술 비중은 서울시의 조사결과보다 낮은 수치이다.
  
- 본 조사기간 중 총 180마리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반려견의 52.6%)가 조사요원의 소개와 설명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신청했다.
  
- 재개발 지역에서 빈 집 혹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중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반려견들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 조사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 504명(무응답 3명) 중 남성은 157명(31.2%), 여성은 344명(68.7%)이었다. 이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시간이 오후 4시~8시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로 집에 있는 주부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의 대상이 반려동물의 보호자였음을 감안하면, 주로 가정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의 연령부분을 살펴보면 응답자 504명(무응답 5명) 중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166명, 32.9%), 50대가 25.6%(129명), 40대가 15.3%(77명), 30대와 20대가 11.1%(56명)가 10.7%(54명) 순이

였으며, 10대가 가장 적었다(17명, 3.4%). 60대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았던 원인 역시 조사시간대에 집에 있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개발 예정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거나 외로움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 인구가 많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2015 반려동물과 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18%로 50대(20%)보다는 낮았지만 30대(17%)와 40대(13%) 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40대(21.6%), 50대(21.1%), 그리고 60대 이상(22.2%)에서 반려동물 보유 비율이 30대 이하 (20대 이하 14.8%), 30대 12.7%보다 높게 나타났다. KB 조사결과는 40대~50대 (각각 31.5%와 36.3%)에서 반려동물 양육율이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9세 이하 연령층의 31.2%보다도 적은 28.6%로 나타났다(30대는 25.7%).

- 본 조사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거주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 504명(무응답 8명) 중 연립/빌라/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278명(55.2%)였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209명(41.5%)이었다. 거주주택 유형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통계에 대한 다른 조사와 비교해보면 KB 연구소의 조사 결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52% 가장 높았으며 빌라 및 타운하우스 (42.2%), 상가건물(35.5%), 주상복합형 아파트(32.6%), 연립주택과 같은 다가구세대(31.4%), 일반아파트 (27.3%), 원룸 및 오피스텔 (17.5%) 순이었다.

- 개인소득에 대한 응답률이 73.0%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7.4%의 월 평균 개인 소득이 200만원 이하였다 (100만원 미만이 32.1%, 100-199만원이 25.3%).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다른 조사(서울시 2013<sup>22)</sup>, KB 2016<sup>23)</sup>)나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결과였다. 응답자 504명(무응답 12명) 중 부모-자녀

<sup>22)</sup> 2013년 서울시 조사결과, 서울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사육하는 가구는 16.7%였으며,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육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24.8%가 반려동물을 사육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소득수준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반려동물 사육 비율도 높아졌다(500만 원 이상 가구의 23.1%가 반려동물을 사육).

<sup>23)</sup> KB 연구소의 2016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이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았다.

거주 형태의 2세대 가구가 49.0%로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나타났으며 부부만 거주하는 2인가구의 경우에는 25.6%, 1인가구는 15.0%로 나타났다.<sup>24)</sup>

○ 반려동물 양육 관련 실태

본 조사결과 중 조사대상 지역의 12.1%의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다. 이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실시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결과인 30.9% (서울은 27.9%),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통계 결과인 21.8%, 2015년 한국 갤럽조사 결과인 19%, 그리고 2016년 서울시 통계인 19.0%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정확한 원인은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만 소득차이가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저소득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한편, 조사 지역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율의 차이가 있었는데, 백사마을의 경우 19.4%의 주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으나 불광지역은 10.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편차에 대한 해석은 백사마을의 경우 주변에 유기되거나 방치, 혹은 새끼를 낳는 개들을 자주 접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분양, 혹은 구조나 입양해서 개를 키우게 된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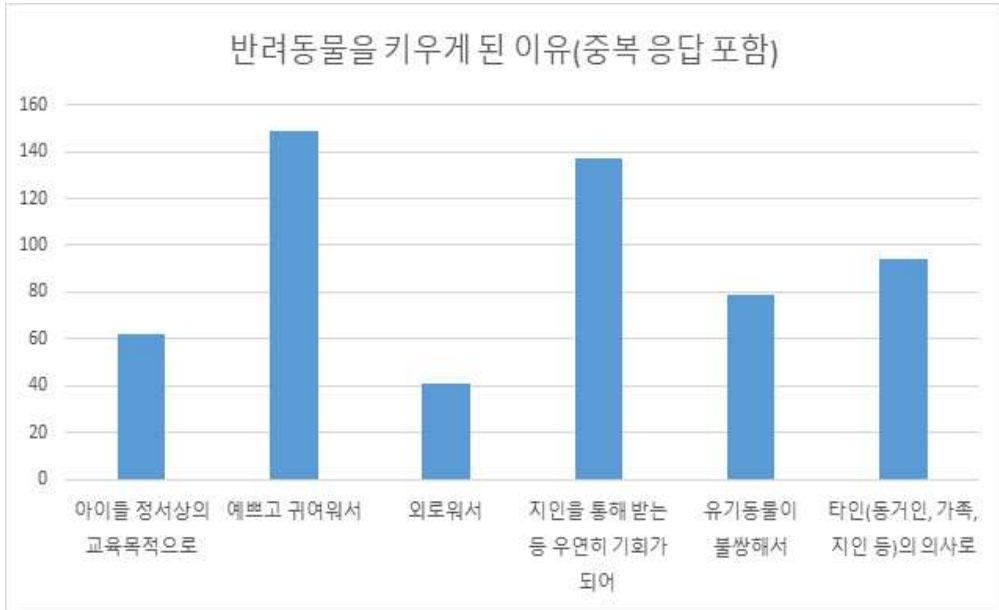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마리수를 살펴보면 반려견의 경우 ‘1마리’를 기르는 경우가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마리’인 경우가 18.9%, 3마리가 2.4% 등으로 나타났으며 10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10마리, 18마리, 20마리 각각 한 가구). 나이가 확인된 423마리의 반려견들의 평균 연령은 5.34세 (표준편차 4.45)로 비교적 어린 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동기와 경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중복 응답 포함)로는 ‘예쁘고 귀여워서’라는 이유가 29.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27.18%)’,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의사로(18.65%)’,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15.67%)’,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12.30%)’, ‘외로워서(8.1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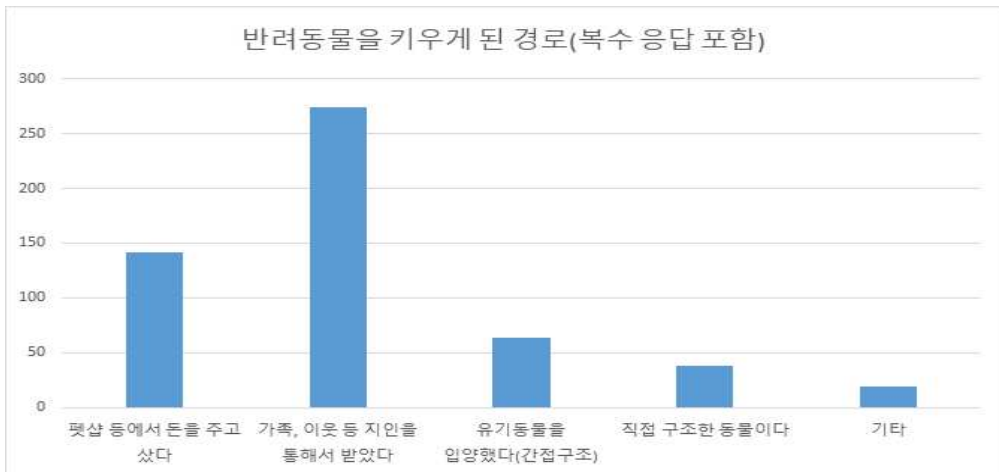
<sup>24)</sup> 서울시의 경우 남자(16.1%)보다 여자(18.8%)가 반려동물을 더 사육하고 있었으며, 연령 별 분포에서는 50대가 21.2%로 가장 높았다. 거주형태별 사육 비율에서는 의외로 아파트(17.1%)가 단독주택(16.9%)보다 높은 사육 비율을 나타냈다. 가구규모별 사육 비율에서는 1인 가구(15.5%)보다 4인 가구(20.0%), 5인 이상 가구(19.6%) 등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반려동물 사육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9건의 기타 의견 중에서는 방법용(집 지키기 위해서)이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동물을 사랑해서, 과거 키우던 동물을 실종이나 죽음 등의 이유로, 어미 때부터 키우게 돼서, 가족이 원해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복수 응답 포함)에 관해서는 가족이나 이웃 등 지인을 통해 받은 경우가 54.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산 경우가 28.17%,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간접구조)가 12.50%, 직접 구조한 경우가 7.5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특징 하나는 유기동물을 직, 간접적으로 구조해서 반려동물로 키우게 된 경우가 20.04%로 무척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가 3.5%에 불과한 서울시 2017년의 조사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유기나 방치된 동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지역주민들이 거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는 유기나 방치되는 동물의 비율도 높지만, 지역주민들의 품게 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유기된 동물들이 포획되어 사라지는 것보다, 공동 돌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 반려동물 관리 실태 (예방접종,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반려견에 대한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확인이 가능한 584마리 중 472마리가 최소 한번 이상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전혀 받지 않은 개가 62마리 (기타 22마리)로 나타났다.<sup>25)</sup> 본 조사에서 반려견 예방접종 숫자가 많은 것은 본 조사의 질문에서 한번만이라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반려견의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넘고 이중 광견병 예방접종은 1-2년 마다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반려견 예방접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sup>26)</sup>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격), 시기(어려서, 노견이라,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등), 건강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밖에 안 나가서(데리고 나가기 불편, 병원가기 힘들어서 등), 몰라서, 바빠서, 본인 직접, 불필요해서, (개가) 아파해서, 약(회충약 등)만 먹이고 있다 등이 있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 동물등록

동물등록을 실시한 개의 마리 수는 전체 547마리 중 207마리(37.2%)로 나타났다.<sup>27)</sup> 농림축산부의 2015년 조사의 전국 통계인 55.2%(서울은 42.5%)보다 낮은 수치이다. 지역별 동물 등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은평구 불광동으로 거의 절반에

<sup>25)</sup> 복수의 개를 보유한 응답자 중 일부는 접종을 하고, 일부는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sup>26)</sup>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광견병 현황 실태에 따르면 반려동물 표본 932마리 중 322마리에만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견병 항체를 가진 동물이 30%대에 불과했다. [http://m.pet.chosun.com/news/article\\_view.jsp?nid=1077](http://m.pet.chosun.com/news/article_view.jsp?nid=1077)

<sup>27)</sup> 각 개인별로 복수의 개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일부는 등록을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며,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경우 가장 낮은 등록률(23%)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백사마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형태의 주거가 훨씬 많았고, 밖에서 기르는 개의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빌라나 연립주택이 많은 불광동 지역의 주민들이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호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3> 동물 등록한 반려견 수(마리)

	전체	노원구 중계본동	은평구 불광동	은평구 갈현동	관악구
등록 마리 수	207	30	68	100	9
미등록 마리 수	340	98	63	165	14
확인합계	547	128	131	265	23
확인불가	37	13	14	6	4
총 합	584	141	145	271	27

○ 중성화 수술

중성화 수술을 실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확인 가능한 553마리 중 211마리 (38.1%)의 개에게 이미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지역별 동물 등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물 등록현황과 마찬가지로 은평구 불광동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높은 중성화 수술율을 보였으며,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경우 가장 낮은 중성화 수술율(28.1%)을 보였다.<sup>28)</sup>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려견 342마리 중, 본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의 소개와 설명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신청한 반려견의 숫자는 180마리로 52.6%에 해당한다. 관악구를 제외한 세 개의 지역 중 불광동 지역이 63마리 중 41마리(65.1%)로 가장 높았고, 백사마을이 97마리 중 42마리 (43.3%)로 가장 낮았다.

<sup>28)</sup> 그 이유 역시 앞서 제시한 등록률의 차이에 대한 추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표4>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반려견 수(마리)

	전체	노원구 백사마을	은평구 불광동	은평구 갈현동	관악구
수술한 마리 수	211	38	66	99	8
수술하지 않은 마리 수	342	97	63	167	15
확인합계	553	135	129	266	23
확인불가	31	6	16	5	4
총 합	584	141	145	271	27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려견 342마리 중, 본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의 소개와 설명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신청한 반려견의 숫자는 180마리로 52.6%에 해당한다. 관악구를 제외한 세 개의 지역 중 불광동 지역이 63마리 중 41마리(65.1%)로 가장 높았고, 백사마을이 97마리 중 42마리(43.3%)로 가장 낮았다.

<표5>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신청한 수(마리)

	전체	노원구 백사마을	은평구 불광동	은평구 갈현동	관악구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마리 수	342	97	63	167	15
중성화 수술 신청수	180	42	41	83	14
수술 신청률	52.6%	43.3%	65.1%	49.7%	93.3%

고양이의 경우 응답자 가구에 함께 사는 고양이 마리 수는 모두 180마리(백사마을31마리, 불광동 45마리, 갈현동 97마리, 관악구 7마리)로 나타났다. 고양이의 평균 나이는 3.37세 (표준편차 2.97세)였다. 고양이에 대한 예방 접종 실시 여부는 확인이 가능한 163마리 중 114마리(70%)였으며 은평구 불광동 (71.4%), 갈현동 (70.4%), 노원구 백사마을(65.3%)의 접종률을 보였다. 동물등록률의 결과는 확인 가능한 117마리 중 8마리(불광동 3마리, 갈현동 4마리, 관악구 1마리)로 반려견의 동물 등록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성화 수술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 가능한 전체 169마리 중 131마리(77.5%)가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화 수술률은 불광동(86%), 갈현동(76%), 그리고 백사마을(61%) 순으로 나타났다.

<표6> 동물등록한 고양이 수(마리)

	전체	노원구 중계본동	은평구 불광동	은평구 갈현동	관악구
등록 마리 수	8	0	3	4	1
미등록 마리 수	109	13	31	62	3
합계	117	13	34	66	4

<표7>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 수(마리)

	전체	노원구 백사지역	은평구 불광동	은평구 갈현동	관악구
수술한 마리 수	131	16	38	70	7
수술하지 않은 마리 수	38	10	6	22	0
합계	169	26	44	9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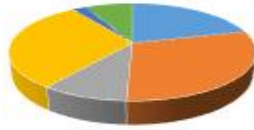
중성화 수술을 시킨 이유로는 발정기 행동문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30.1%),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29.7%), 더 이상 새끼를 낳게 할 수가 없어서 (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려 고양이 38마리 중, 본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의 소개와 설명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신청한 숫자는 26마리로 68.4%에 해당한다. 세 개의 지역 중 불광동 지역이 6마리 중 4마리(66.7%)로 가장 높았고, 백사마을이 10마리 중 4마리 (40.0%)로 가장 낮았다.

<표8>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반려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신청한 수(마리)

	전체	노원구 백사지역	은평구 불광동	은평구 갈현동
수술하지 않은 마리 수	38	10	6	22
중성화 수술 신청수	26	4	4	18
수술 신청률	68.4%	40%	66.7%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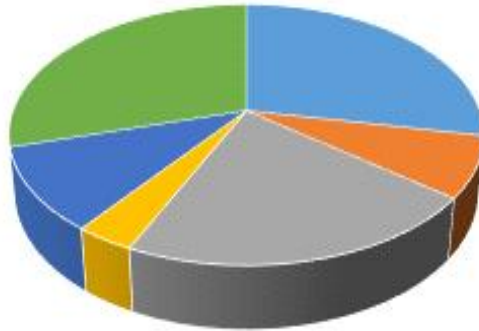
## 중성화 수술을 시킨 이유



- 더 이상 새끼를 낳게 할 수 없어서(키우기 어려움, 모견 건강)
-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 다른 질병을 치료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었다
- 발정기 때 행동문제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 유기동물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 기타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꼭 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28.1%),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21.2%), 수술이 두려워서 (10.3%), 중성화 수술이 동물 학대라고 생각되어서 (7.5%), 수술비가 비싸서(3.4%)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중성화 수술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며, 수술비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통해 정정한 수술비용 제시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수술비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싶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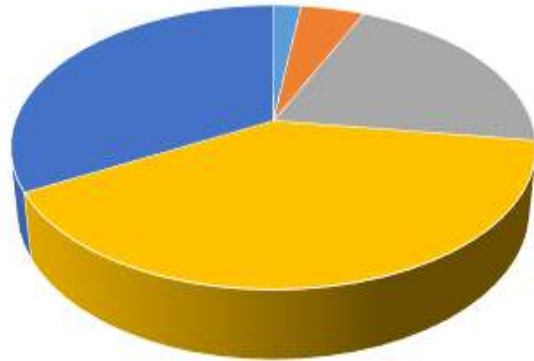


-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 중성화수술은 동물학대다.
-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 기타

### ○ 동물보호 및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

다른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 다수가 다소 낮거나(39.8%) 매우 낮다(32.9%)고 밝혔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5%), 다소 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6.7%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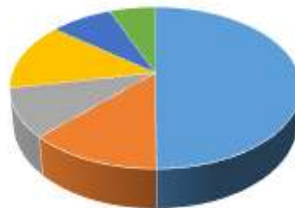
### 다른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



- 매우 높은 수준이다
- 다소 높은 수준이다
- 비슷한 수준이다
- 다소 낮은 수준이다
-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동물학대 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가장 높았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13.7%)와 초등학교교육(12.5%)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9.6%)과 국가에서 동물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8.2%) 등이 있었다.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수준을 올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동물학대 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을 넣어야 한다.
-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 기타



## 2. 함의 및 제언

이상 소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조사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조사 지역의 반려동물 등록과 중성화 비율이 서울시의 조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동물 등록이나 중성화 수술 거부 이유 중 상당부분이 잘못된 정보나 인식에 근거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다수의 응답자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이 낮다고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보호 교육 등을 강조 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동물보호 단체들의 협치가 요구된다.

셋째, 본 조사 대상 안에서도 많은 편차가 있음이 드러났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거주 주택형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 된다. 즉 백사마을 지역이 동물등록과 중성화수술 실시율, 중성화 수술 신청률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백사마을 주민이 대부분 낙후된 단독주택의 형태의 거주지에 살고 있어서 많은 경우 반려견들을 집밖에 묶어 놓거나 풀어놓고 키우고 있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집 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에 비해 관리사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집밖의 마당에서 묶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동물등록이나 중성화 수술이 필요 없다고 밝힌 응답자도 다수 있어서, 이와 관련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백사마을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한편으로는 방치나 학대가 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들을 직, 간접적으로 입양해서 키우게 된 경우가 기존의 조사결과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방치나 학대도 일어나고 있지만 같은 마을에서 방치되고 유기된 동물을 측은지심에 의해 거두고 돌보는 사례도 많다는 긍정적인 사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길고양이나 떠돌이 개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마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전수조사 결과 중 주요한 사항을 요약하고 분석했다. 본 조사가 재개발 예정 지역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나 전국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며 주요 변수에 대

한 한 추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마저도 조사항목이 다르고 같은 항목의 결과에서도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조사원 참여관찰 소감문

## 1. 공통 의견

- 동물등록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서 홍보와 교육이 많이 필요해 보였다.
- 중성화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 장시간 부재중인 집들이 많았다.
- 조사지역에 미리 현수막을 설치해서 사업을 안내하면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경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길고양이 TNR 사업과 급식소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갈현동은 절실히 보인다.
- 동물등록만 원하는 경우도 지원하면 좋겠다.
- 유기동물 입양자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외계층에게 간식, 사료,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전문가의 찾아가는 동물상담 서비스.

## 2. 그 외 의견

- 부재중인 집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웃의 증언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이나 산책로에 간이부스, 파라솔 등을 설치해서 홍보해도 효과적일 것 같다.
- 인터넷에 공개된 지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더 편했다.(1명)

## 【갈현1지역】



A.

재개발 예정지역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동물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산을 자주 다니는 저도, 그런 가파른 길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곳을 일주일 동아 땀별 아래 오르락내리락하니, 힘들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주택 생활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곳이 빌라, 연립 등으로 건물을 올렸지만,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은 많은 곳이 단독주택이더라고요. 텃밭도 있고, 작은 의자와 쉼터도 있는. 설문조사를 다니니, 개를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다, 감사하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마당에서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거의 길고양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간의 삶도, 동물의 삶도 재개발 예정지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바깥 마른 물골로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녀석, 빈집 옥상 그늘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

는 녀석, 주차된 차 아래서 더위를 식히는 녀석, 깨진 병들이 무수히 꽃힌 담을 조심스레 뛰어 올라 묘기처럼 아슬아슬하게 걷는 녀석...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저는 개보다는 고양이의 삶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길고양이 밥을 주시고 계시거나, 길고양이를 입양해서, 모두 중성화해서 잘 키우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었지요. 그런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힘으로 모두 수습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는 절망감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동물 문제는 문제 자체도 어렵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노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 심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긴 하지요.

한 단독 주택을 두드려 보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대문이 유난히 폐쇄적이고, 담도 아주 높은 집이었어요. 한 10번 두드리니 개가 왕~ 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왕!! 아니고, 무슨 신음도 아니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참다가 왕~ 하다니... 보통은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무리 안을 들여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서 옆 다가구 주택 계단 위로 올라가도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고, 담에 딱 붙어 까치발을 하고 보니, 코카스파니엘 한 마리가 자기 몸보다 약간 큰 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크기였던 것 같아요. 변태새끼!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개가 왕왕~하니 주인이 그제서야 나와 누구야!!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하니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 리플렛을 대문 안으로 넣어 놓고 왔네요. 조사 기간 동안 그 집에만 리플렛을 여러 번 넣었습니다. 마당도 그렇게 넓은 집인데. 개를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장 안에 넣어 놓다니. 정말 그 집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아서, 그들을 타겟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함께 하는 사업이 좋을 것 같아요. 월 수입이 50만원 정도 되신다는데,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개 키우기에 대해 교육도 좀 실시하면 좋겠고요.

B.

중성화 지원사업 전수조사를 하면서 가장 반겼던 두 가지 소리가 있다. 바로 문을 두드렸을 때 집주인이 대답하는 ‘누구세요?’와 각종 ‘개 짖는’ 소리가 그것이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여념이 없는 가가호호마다 둘 모두의 소리가 나는 집은 드물다. 전자가 들리거나 후자만 들리거나. 아니면 그 둘 모두 없거나.

문제는 문이 열려도 시작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로고를 보여도 돌아오는 냉대와 무응답.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안 사요.’ 등등. 자존심이 곳곳에서 있던 몇 년여 전의 나라면 결코 7일간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애써 지어낸 상냥한 목소리에 돌아오는 서리한 냉대. 계단을 오르면서 올라던 열기도 금세 식어버리게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단 5초. 중성화 수술 무료 지원 소식과 각종 유용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주민들은 그다지 우리를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반가웠던 건 개들의, 고양이들의 소리다. 현관문이 열리면 집주인이 쓰는 의심의 눈초리와 경계하는 개들의 짖음을 한껏 맞으면서도 반려동물들의 존재가 반가웠다. 2층에도 마당이 없는 주택에도, 어두워 보이는 지하 집에도 너희들은 있구나. 동물을 따로 키우지 않는 내게는 특히나 그랬다. 애인도 아니면서 애칭으로 불리고 집세도 내지 않으면서 당당히 거주하는 반려동물이란 생명들.

우리 조가 다닌 곳은 모두 729가구다. 5일간을 설문을 받으려 방문하고 나머지 2일간은 부재중이었던 곳을 재방문했으니 하루에 120~200여 곳은 들렀던 셈이다. 오후 4시에서 8시. 한낮의 열기가 아직 건물 전체에 배어있을 시간. 함께하는 조사원의 미간에도 주름이 잡히고, 백팩과 등 사이에서 소금물이 강을 이룬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조사원을 자청했을까? 들개와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재하는 웹툰에 소재로 쓸 거리를 찾기 위해서? 활동비를 받으려? 나도 뭘지 모를 어떤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것만 같아서?

방문했던 한 가구에서는 고양이를 13마리 기르는 집이 있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기묘한 악취와 흠날리는 색색의 다양한 털 뭉치들. 눈 한쪽씩이 찌그러진 고양이들은 외상이 아닌 근친상간으로 인한 유전의 결과인 듯했다. 묘주(猫主)는 홀로 사는 여성이었고, 고양이들의 잔병 수술들로 인해 이미 많은 돈을 쓴 상태. 묘주 역시 폐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무엇이 이 여성이 이 많은 고양이를 홀로 기르게 했을까.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어찌지 못하는 순간들을 맞이한다.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오래 그래왔으니까’. 다양한 이유로 그 시절을 설명할 수 있다. 바꿀 힘

이 없고 버틸 힘만 남아있는 그때는 그저 자신을 변화시키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관성으로 살아갔다. 그런 사람에게 외부의 노크 없이 내면의 답을 찾아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려동물의 비싼 수술비? 그 자체로 재앙이고 파탄이며 사치다. (그렇다고 애니멀 호딩을 옹호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사업이 이들에게 답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엉겨있는 이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에서 그걸 풀 수 있는 꼬트머리의 잡은 시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의 아픔은 사람의 아픔에서 나온다. 이제는 그것을 바로 볼 때도 되었다.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반려동물을 사랑할 줄 모르겠는가.

## C.

### 1. 느낀 점

1) 반려인 들의 태도가 극과 극임을 느꼈다. 반려 동물을 가족이상으로 생각하고 생명임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해주는 반면, 어쩔 수 없이 키우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반려인 이 의외로 많았다.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2)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았다  
배설물 냄새와 환기가 되지 않은 듯한 탁한 냄새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한다. 반려동물들 땀에 병이 생겼다고 하지 말고 집안 환경 먼저 개선했음 한다.

3)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함을 느꼈다.  
'그 판거 안 키워', '부모한테나 잘하지 개한테 돈 쓴 다' 등등 아직 물건 취급당하고 악담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 2. 13마리 고양이와 아픈 집사

지인에게 얻어온 고등어 무늬 암컷, 딸이 데려온 삼 수컷... 중성화가 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어느새 13마리의 대가족이 되어 있었다. 아기가 아기를 낳고 하다 보니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돈이 없어서 중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민원에 보호센터에 보내려 알아 봤는데 일정 기간 후 안락사 시킨다는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집안의 악취가 심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도 병이 날 상황이었다. 어떤 식 으로든 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는 가슴 아픈 집이었다.

### 3. 필요한 사업

- 1) 주민들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 2) 독거 노인들이 많이 키우는 만큼 강아지 산책이나 목욕 봉사



D.

일주일이란 시간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어떤 일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합류한 터라 잦은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서 혹 배울게 있나 지원해 본 것이었는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첨엔 유기묘, 유기견 사업인줄 알았었는데, 예방 차원이라는 것이 저에겐 신선했습니다.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곳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늘 예산이 문제 일듯 합니다.

생각보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는지 많이 돌아다니는 저인데도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괜히 했던 생각도 듭니다. 그곳이 길냥이들이 많다는 점과 자기집을 가진 주택 사람들이 쥐약, 농약으로 많은 아이들을 죽인다는 소리를 들어서입니다.

새끼를 데리고 어느 집앞에서 계속 울어대던 어미의 소리와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늘 로드킬의 위험을 안고 사는 아이들의 삶이 안쓰러웠고, 좀 더 그곳이 중성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거의가 들개와 길냥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면 그 지역은 조금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이 고양시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 지역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E.

처음에 이런 일인지 모르고 신청했다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일일이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 살짝 겁이 나기도 했고, 처음 보는 분과 조가 되어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막상 시작해보니 경사진 골목과 그 곳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빌라나 연립의 계단이 장난이 아니었다.

인적없는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잡상인 취급하는 무안한 거절 등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간간히 따뜻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치유되기도 했다.

갈현동 담당 지역은 빌라나 연립은 작은 소형건을, 위 꼭대기로 갈수록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 많고 그 집 대부분은 대형건을 키우는 비중이 높았다.

큰 개들은 너무 짧게 묶여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더했고, 대부분 중성화를 거절이유가 묶여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조사 기간중 강아지를 산책하는 주민은 아주 적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보편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홍보가 절실했다. 나이드신 분들만 계신 가구(가끔 자식세대가 찾아오는 경우 포함)와 자식세대가 같이 사는 가구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다. 자식들의 반려동물 인식이 높은 편이라 같이 사는 노인세대도 같이 의식화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길냥이 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문제가 됨을 인식했다.

골목 하나 차이인데도 캣맘이 밥 위주로만 주고 TNR은 하지 못하는 상황의 골목은 주민 원성과 불만이 자자했고, 밥과 TNR을 같이 해주는 골목은 나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원했으며 길냥이에 대한 측은지심과 인식이 높았다.

구나 동이 연계해서 개체수를 조절하면서 케어를 같이 해주고 캠페인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또 다른 지역 전수조사 이루어진다면 전수조사 요원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한다. 처음엔 이런 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헤매거나 하는 등-이런 경우 다른 조사원의 업무량이 증가한다. 그걸 다시 같은 조사원한테 일일

이 다시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 번갈아 가며 하다보니 부재중인 곳을 체크 등이 서로 달라 보기 어려웠다. 한 사람이 계속 한가지를 맡아하거나 3일 정도 하고 교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한 시행하기 전 미리 그 지역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통반장을 통한 유인물 등을 미리 고시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도 좋을 듯하다. 혼자 집에 여성은 서울시라고 말해도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예 대답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힘들어서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끝내놓고 보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듯해서 뿌듯하다.

F.

과거 재개발 지역에서 유기되는 반려동물과 들개문제, 그리고 서식지와 캣맘을 잃고 생사의 기로에 처한 길고양이 문제를 적잖이 접한 터라 사업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조사 해당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마을로서 이미 들개출몰,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가구, 길고양이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얻은 부분은 주민과의 직접 대면으로 얻은 경험입니다. 895세대 방문, 그 중 561세대와 짧게든 아니면 그 보다는 조금 더 길게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동물복지 강사라고 한들 나의 반려동물, 내가 보살피는 길고양이를 제외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반려인을 만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은 그리 흔하지 않을 테니까요.

경험했던 것 중 이후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가독성이 뛰어난 리플렛 제작 : 조사원이 방문하는 시간은 4시~8시, 7시 이후라야 청장년층이 집에 있고 다른 시간대는 대체로 집에 계신 분은 노년층입니다. 그리고 갈현동 지역이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렛이 글씨도 작고 장년, 노인들이 보기에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글씨를 좀 더 키우고 가독성을 높이는 레이아웃으로 제작되길 바랍니다.

설문조사지 : 개의 정보를 적는 문항에서 접종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 모두 최초 접종이 있고 매년 하는 접종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으면 좀 더 정보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하고 싶은 제안, 우리 동네에서 느끼는 문제도 객관식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주관식에 약한 한국사람(?) 혹은 장년/노인층이 주관식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려인과 관련한 현안 중에서 동물의료보험 부재로 인한 고액의 동물병원비, 유기/들개 문제, 길고양이 개체수 문제, 개 산책 매너 등등 몇 가지 중요 이슈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인 선물이 좋아요 : 기호나 각 동물개체의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선물 이를

테면 사료, 샴푸 등 보다는 누구나 받을법한 선물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료, 샴푸는 잘 안 받았고 캔, 소독제, 개껌, 티셔츠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년 이상의 독거인과 사는 반려동물 문제 : 독거 노인, 거동이 힘든 환자 세대에 외로움을 달래시려고 개를 키우는 가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별로 없긴 하였지만 여하튼 개나 고양이의 복지를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곳도 있었고요. 이후 이 가정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와 연계된 프로그램이어도 좋겠네요.

길고양이 문제 : 제가 돌아본 경험으로는 갈현동 지역은 들개 혹은 예비 들개의 문제보다 길고양이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동네의 끝에 산이 있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도 꽤 있어서 길고양이가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인 것도 중요한 요인이고요. 길고양이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시긴 하지만 대체로 길고양이가 불쌍하다는 호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조용히 쥐약/농약을 살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 이소문제는 카라가 현재 관여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예비 재개발 지역에 길고양이 TNR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체수가 워낙 많으므로 장시간에 걸쳐 안전하게 TNR이 실시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업이 이 지역에서 실행된다면 그 때 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원의 복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사원 티셔츠 여분 필요 : 여름이고 계속 걷는 일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늦은 저녁이고 피곤한데 티셔츠를 빨아야 합니다. 조사원의 복지를 위해 여분의 티셔츠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선물은 싫어요 : 4시간 동안 비탈길과 빌라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1.5kg 였던 사료, 소독제를 여러 개 들고 다니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사원은 짐꾼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이동하는 시간도 적고 쉽게 출퇴근을 하였습니다만 1시간 반

이상 걸려 오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여 축적한 정보이고 결과니 아무쪼록 이후 연관된 사업으로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G.

## 1. 조사를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과 생각

조사 시작 전에는 어떤 아이들이 어떤 반려인과 살아가고 있는지 호기심 가득한 마음이었습시다.

하지만 갈현동 지역은 반려인보다는 주인이 많더라구요. 조사중에 들었던 말 중에 “고양이야 집나가면 잘 살겠지.”, “옆집 개 짖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키우는 거지 나는 몰라요.”등 아직은 반려의 삶에 스미지 못한 채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시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의 소득수준, 주거생활환경이 좋다고 해서 절대로 아이들이 더 존중받고 잘 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시다. 오히려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반려동물이 더 큰 의지가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시다.

다음조사 개선방안 의견

- 1) 4~6시에는 신규방문, 6~8시에는 재방문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시다.  
(퇴근 전 부재중 집이 너무 많더라구요.)
- 2) 조사비에 식대가 청구된 만큼 정해진 식사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시다.  
(자율적인 휴식과 식사 때문에 조사 참여도에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구요.)
- 3) 그날에 필요한 조사결과 데이터는 시작전 브리핑을 하면 조사원이 계산하기 편리할 것 같습시다.
- 4) 조사지역 통계자료 오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사원들에게 담당구역 예상일정을 매일 체크하여 지원팀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시다.
- 5) 팀장님들께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좋겠습시다.  
(단기라 할지라도 조사원으로 참여한 만큼 교육시간에 조사의 원활함이 팀장님께 있다는 것을 느낄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시다. 현장지휘는 팀장이 하기 때문에 교육시간 팀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조율의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시다. 감사의 인사말도 좋지만 교육의 비중은 팀장님과의 모임에 비중을 뒤야 할 것 같습시다.)

## 2. 기억에 남거나 특이했던 사례

갈현동 285-20번지 할머니댁에 진돗개 한 마리가 4번 방문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웃집의 말은 할머니님이 일을 하신다 그랬지만 혹여나 할머니님이 아프신 경우 진돗개가 방치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조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3.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제안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부담이 노견에겐 질병 방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소득조사와 의료비 지원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을 잠재적 유기자로 몰고 가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가 되는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젝트여서 참여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 부탁드립니다.^^



H.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다보니 뇌출혈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시는 할머니가 강아지와 함께 지내셨는데 우리를 보고 반가우셨는지 설문 내내 눈물지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강아지도 처음 보는 우리가 반가운지 뽀뽀하려 달려들었구요. 강아지도 할머니도 사람이 그리웠나봅니다.

회식 때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아지도 돌보고 할머니 말벗도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길냥이들도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거리에 방치되어 굶어 죽거나 독극물을 살포한 사람에 의해 피를 토하고 집 앞마당에 죽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길냥이와 들개를 만든 건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물론 이런 길양이에게 먹이를 주시는 좋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마저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에 대한 많은 상식없이 시작하게 되어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 I.

### 1. 소감

1)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을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강아지나 고양이는 잃어버릴 염려 없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수술 자체가 동물학대다 등의 주관적인 이유가 앞섰습니다. 이 사업으로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내 아이는 소중한 반면, 이웃의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 들개 같은 유기동물은 그저 공포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걸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유기동물에 대해서만은 홀대하는 이유가 배설물로 집주변이 더러워져서라거나 우는 소리만으로도 존재 자체가 싫다는 감정적 호소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이어 캣맘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단순히 밥을 먹여 번식시키는 데 일조하는 사람쯤으로만 치부했습니다.

3) 이웃집의 강아지 소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은 동네 개가 모조리 사라지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강아지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진다는 소문이라도 내볼까 싶을 만큼 그 혐오가 이웃 간의 단절로 금 가 있는 걸 보며 해결방안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4)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갈현동은 적어도 혜택받은 동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성화 지원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주민들은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재개발지역뿐 아니라 멀리 지방까지 반려동물만이라도 중성화 수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 2. 특이사항

1) 일주일간 가장 기억에 남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단독주택 마당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보이는 진돗개였습니다. 특별히 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았지만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그 큰집에 주인만을 기다리는 아이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밟힙니다.

2) 캣맘 한 분은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산다며 피해망상에 가까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수년간 길냥이들 중성화 수술을 자비로 해결하면서 개체 수를 줄이는데 나름의 역할을 다해 온 분이었습니다. 선의에서 시작됐을 동기가 악의로 오인 받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자칫 감당 못 할 피로감으로 그분이 활동을 멈추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길냥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3. 갈현동 동물 관련 사업 제안 - 갈현동이 제가 사는 동네일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1) 내장형 방식의 동물 등록제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건강에 해롭다거나 그 과정이 학대로 보인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당장 잃어버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럴 리 없다는 의지만 내보였습니다. 이를 설득할 과정의 일환으로, 접근이 용이한 주민센터에 반려동물 인증사진 등록제를 만들어 지역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등록제를 꺼리는 다수의 반려인도 유사시,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루트가 생기고 그 후에도 내장형 동물 등록제를 유도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이 동참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국 주민센터에 <유기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등본 부서>를 마련해주세요.^^

2) 캣맘이나 캣대디의 사전적 의미를 담은 국어사전 등재가 필요합니다. 길냥이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처해서 해결하려고 나선 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러한 기초적인 학습효과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나와 이웃의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을 끌어낼 계기도 마련될 것입니다. 좀 더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과 주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3)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시공되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만이라도 건축법을 수정해 방음조건의 수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녹음실과 같은 소음방지가 해결되는 건축재 도입을 정부 지원을 받아 의무적으로 설계한다면 동물에게 성대수술까지 범하는 일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환경을 구실로 학대를 정당화하는 반려인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반려인구 증가세를 고려할 때, 개인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주택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J.

개인적인 소감, 생각

이 조사를 통해서 서민들이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풍경을 상당히 실질적으로 가깝게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네 특성상 자연이 가까이 있어서 들고 양이들의 문제점이 많아 위생상태나 소음, 번식으로 인한 불만이 많이 있었던 점은 있었지만 대체로 그런 힘든 점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사료를 준비해서 나눠주고 때로는 입양해서 키우는 주민들이 좋아보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특이사항

많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많은 수의 동물들을 키우거나 번식용으로 키우는 가정이 있어보였습니다. 3마리의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는데 아마도 새끼를 번식시켜서 수익을 올리고자하는 의도로 키우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이를 6살 정도 먹어 중성화 수술을 고려하고 있기도 한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을 거두어 밥을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본인의 고양이는 아니라고 하니 이번 사업에 적합한 조건은 아니지만 중성화 수술을 해줄만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사상충 4기의 진도개가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속 치료를 시켜줄만한 여건이 아니며 보였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2번지 꼭대기 건영아파트 근처빌라였는데 거기는 웬지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이 함께 동물들을 키우시는데 특별하게 공동체를 만든 것 같지는 않지만 서로간에 도움을 주며 많은 수의 개와 고양이들을 길렀습니다. 때문에 서로간에 사이가 좋아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는 고양이 살해사건이 있었던 동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을 알지만 특별히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 지역 동물관련 사업

저는 이번 조사 사업을 통해서 동물들이 도시에서 더욱 복지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 동물들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상이 잘 유지되고 복지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인수도 많았는데 그분들의 수입이 사실 많을 수가 없으므로 동물들을 애뜻해하며 보살피기는 하나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드는 큰 병이 있는 경우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치료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도 중요하며, 주민들 간에 공동체적인 연계방식을 연구하여 (사실 공동체적 모임이 정서상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동물복지사(?)들이 노인들과 동물들이 사는 가정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그 가정들을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K.

7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느낀 개인적인 소감은, 제가 다녔던 갈현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의 경우 주로 연세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으셨는데 예상보다 훨씬 동물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여 놀랐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 동물뿐 아니라 길고양이들에게도 밥을 주며 돌보시고 구청에 신청해 TNR 요청도 하시는 걸 조사 다니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수술받고 잘 돌아오는지, 제자리 방사까지 직접 포획업자에게 연락 달라시며 지켜보셨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직은 소수겠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구청의 중성화 사업이 일부 민원인들만 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이 아니라 거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더 투명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이미 시행초기에 중성화 및 동물등록을 하신 분들도 몇분 만났구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대부분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는 수준이 낮고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적어주셔서 사회적 약자인 동물에 대해 의식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에도 감동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재개발 지역인 경우 대규모 이주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들, 특히 중성화가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스스로 번식하여 개체수가 늘어나고 야생화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기획된 사업인데 가가호호 돌아보며 중성화의 장점을 알리고 동물 키우는 가구에 직접 대화를 하며 동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사업 취지보다도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고 걱정스러운 한 가구는 연세드신 아버님 댁이었는데 백구 어미와 그 어미가 낳은 새끼 5마리가 있던 집이었어요. 중성화 안내와 설문을 하러 방문 했는데 대뜸 보호소를 알아봐 달라, 다 키울 수 없고 지인에게 보낼 곳도 없으니 보호소에 보내야겠단 말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더라도 중성화는 꼭 해주고 보내시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중성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 걱정이 되서 한경지 선생님께 따로 유기염려 가정으로 표시해 알려 드렸습니다.

설문 내용 중 한달에 지출하는 사료비 항목도 아주 저렴한 사료를 먹이는 것으로 파악되는 집들이 많아서 마음은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ㅠㅠ.. 그렇지만 조사 중 만난 대다수의 분들이 학대하거나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은 없었고 각자 형편껏 최선을 다해 돌보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네, 더 좋은 걸 먹이고 잘해주는 건 소유주에게 달린 개인적인 부분이고 좋은 사료가 아니라고 키우는 아이들을 아끼지 않는 건 아니니 이걸 그저 제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이 구역에 꼭 필요해 보이는 동물 관련 사업은 들개 예방이 목적이었던 프로젝트의 처음 의도는 제가 조사한 결과 유기가 염려되는 소수 가정은 파악이 되었고 혹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중성화를 유도하여 신청도 받은만큼 유기견에 대한 부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사 중에도 여러 차례 길고양이에 대해 항의하며 잡아가라는 일부 나이 많은 거주자들이 있어 구청 TNR 사업을 안내하고 길고양이를 살처분시 쥐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설명과 계도를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또 고양이의 특성상 집안에만 있는 개와 달리 자유롭게 담을 타고 여러 집으로 다니다 보니 주거지에 들어가 주차장에 배변을 하는 등의 문제에는 시원한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저 역시 집근처와 여러 군데 길고양이들 밥을 주는 캣맘이지만 길고양이 혐오자와 혐오자는 아니지만 화단이나 주차장에 배변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거나 항의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밥을 주지 않는다고 영역을 떠나지도 않고 쓰레기를 먹는다고 배변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실은 길고양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저희 같은 소수만 알고 이해할 뿐, 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야생 동물이란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구요. 기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의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동정심을 가지는 일부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타협을 보게 되구요.

적극적으로 밥을 주진 않아도 길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또한 길고양이가 존재함으로 쥐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기에 유기 예방 뿐 아니라 시민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공존에 대한 안내를 위해

서도 시나 구에서 주도하는 홍보가 자주 있어야 겠구나 느꼈답니다. 설문에 응해준 대부분의 분들 의견과 저 역시 마찬가지로 더욱 강력한 동물학대 처벌도 실현되어야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학대는 물론이고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굶기지는 않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는 방치나 좁은 집에 수십마리를 가두고 사육하며 현실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아이들을 인형처럼 모으고 결국 방치하게 되는 애니멀 호더에 대해서도 아직까진 법적 규제나 처벌이 전무한 상태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너무 많지만 한걸음씩 느리더라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키워지다 사람에게 버려지고, 버려지고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말하지 못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아이들과 사람으로 인해 삶이 결정되는 동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결국 우리 사람이니까요. 처음 지원할 때, 흔치 않은 경험이고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지역의 경우 살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배우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던 일인데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서울시와 카라의 민관협치 사업이고 저 역시 서울 시민의 한사람으로 의미 있는 사업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서울시와 카라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



L.

## 소감

내가 사는 동네 길거리 개들(그 조상들은 이 동네 다른 주인들에게서 버려진 개들이라 함)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어떤 민원에 의하여 구청과 포수가 자꾸 들이닥쳐 동네 개들을 포수 총으로 잡아가는 일, 광경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카라에서 활동하는 선배에게 자문을 구하다 이 사업에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 개들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동네 개들을 우리 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이라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신문 검색하다가 ‘들개’, ‘유기견’ 등으로 불리는 것도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정말 인간은 인간중심이로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내가 오히려 이곳에 이주해왔는데, 이곳이 토박이거나 먼저 터 잡았고, 태어난 동네 개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우습고 황당한 광경인가 싶기도 하구요.

물론 저도 몇 년전 이사왔을 때는 동네 고양이가 우리집 옥탑방 옆에 함께 출퇴근하면서 거주해서 처음에는 애가 왜 이러나 싶고, 털이 내 옷에 묻을까 조심하기도 했는데, 자꾸 같이 살다보니 정들고 넘 이쁘더라구요. 털이 묻어도 아무렇지 않아지구요. 그렇게 일년을 살다가 어느날부터 안 타나나게 된 거예요. 동네 개들에게 물렸거나 해코지 당했거나 죽었을까 싶어서 동네 개들이 멍기도 했고, 그러다 생태계를 이해하자 싶고, 그래서 또 우리 냥이가 보고 싶지만, 보내고 이 동네 개들과 또 친하게 그냥 지냈거든요.

어떤 동네 아랫마을 분은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위로 산책 오려해도 동네 들개들 땀에 무서워서 못 온다고 하고, 선배 한분도 이웃에 살지만, 무서워서 못 온다고 하니, 서운하면서 이해되기도 하구요...

그 존재 자체로도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중성화와 등록 안내 조사 활동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사랑하거나, 동네 돌아다니는 동네 냥이들을 집도 만들어주고 밥도 주면서 보살피는 것을 보고 맘이 훈훈해지기도 했구요, 동네가 빈곤지역인거 같고 그럼 경제적 각박함에 마음도 각박할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도 관계맺음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고, 틈을 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에 마음이 좋기도 했습니다. 또 길냥이들을 집에 자리를 내주고, 중성화도 자비로 해주거나 혹은 구청에 얘기해서 해주

는 정성을 보이시는 분들에게 존경스런 맘도 들었구요.

일부 동네 분 중에는 중성화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지만, 개체수가 늘었으니 처분하기 싶다는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을 보고 놀라면서도 다른 안내를 못해주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못키우니 동물보호소에 보내버리고 싶다는 표현 등...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조사원 분이 고양이 보호, 혹은 학대 관련 모니터링 등을 일상에서 해오시던 분이어서 구청, 동물관련 담당자들의 무책임하고 관료적이고 무성익한 태도와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동물관련 과와 동물보호단체 자문이나 협치 등의 과정에서 좀더 세밀한 조사와 개선 대책 등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야생화된 들개가 모두 위험한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동네개들은 야생성도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지나가면 꼬리 흔들거나 자빠져 자느라 정신 없거나 그렇거든요. 야생성, 들개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정말 위험한 것에 대한 대처 등의 대중적 안내와 홍보 등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 기획하신 단체와 활동하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불광 5지역】



A.

주민들이 아직까지 중성화에 대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의식도, 방법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었다.

중성화를 안 하셨거나 거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노견'이라는 이유였는데 10년 이상 산 개들은 앞으로 얼마 못 살 건데 굳이 수술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강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귀찮음'이 큰 것 같은데. 비용까지 무료로 해드린다고 해도 그에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주시고 동물보호에 관한 의식이 있어 보이는 이들도 의무등록제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시는 것으로 보아 홍보가 전혀 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물병원에서 방문하는 견주들에게 의무등록에 관한 고지를 하게 한다든지, 등록을 더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컸다. 그래서 최소 대여섯번 이상 문 두드리기를 시도하고, 3회 이상 재방문을 하고 대답을 받기를 바랬지만 응답률이 기대보다 저조해서 안타까웠다.

일단 초인종이 없거나 고장난 집이 반 이상이었는데, 단독주택은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서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초인종도 없고 대문까지 잠겨있는 다세대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두들겨도 반응이 없었다. 이런 집은 드나드는 주민이 한명이라도 있지 않은 한, 각 세대로의 진입 자체가 난관이었다. 그래서 여섯번을 방문하고도 결국 조사를 못 한 다세대가 있어서 안타까웠다.

시범사업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와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조사방문시 조사요원이 꼭 체크해야 할 것을 자세히 지정해놓고 규격화해두면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는 처음이다 보니 기록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록지의 칸을 나누고, 체크할 것을 선별한 탓에 꼭 체크할 것을 깜빡할 염려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사항까지 기록하게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각자의 기준으로 쓰인 기록지가 섞이면 데스크에서 알아보기도 힘들 것 같고,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았다. 실제로 마지막 날 갈현동 지역을 분할받아 재방문 할 때는 인계시 받은 정보의 오류와 혼선 때문에 이미 조사한 집을 재방문하여 주민들을 귀찮게 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설문지의 항목과 보기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퀄리티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서비스를 국가에서 받아 본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혹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심과 불신을 가진 주민분들도 계셨는데 일전에 나온 건의사항처럼, 전수조사 전에 동네입구와 큰 골목 몇 곳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전수조사기간과 무료신청, 참여하시면 선물도 드린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재개발 지역의 유기견 발생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따르는 부양의무와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역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직접적 원인일 것 같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키운 반려견이 너무 귀엽고 소중하지만 생활고 때문에 힘이 드니 혹시 어디다 갖다 맡길 수는 없다는 말씀도 슬쩍 하셨는데.. (다행이도 이분은 등록과 중성화를 신청하셨음)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유기견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재개발구역들도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동물등록을 해주는 서비스를 (재개발전까지) 일년에 한번쯤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B.

이 지역은 중성화보다 길고양이 TNR 사업이 더 절실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나 빌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서식하기 매우 유리한 환경이나, 길에서 만난 고양이들 중 TNR이 된 고양이는 단 한마리도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한군데 있었으나,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들개 예방이 목적이라면, 대형견 반려가구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단독 주택 위주의 재개발 지역이 먼저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의 재개발 지역은 동물등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

○ 조사를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과 생각

보호 센터에서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입양한 경우도 꽤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구입하거나 받은 강아지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잘 하고 있어서 예상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었어요. 반려동물이나 사람 사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기회였어요. 조사팀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많은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견 방지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중성화 수술은 원하지 않지만 동물등록만 원하는 경우에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성화는 유기견이 될 것을 가정하고 번식을 방지하는 쪽이라면 동물등록은 유기견 자체를 방지하는 게 될 것 같아서요.

도로명 주소가 더 편했어요! (인터넷에 공개된 지도에 재개발구역 점선표시도 있음)

기타의견: 브로셔 글씨가 작음 / 고양이 선물 부족 / 조사 전에 현수막이나 단수 공지처럼 사전공지 필요 / 서울시 티셔츠가 효과적이었음 / 시간 공지나 다른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음

○ 방문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특이사항이 있던 사례들

단독주택 마당에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중성화나 설문조사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아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가 지하에 미싱 작업방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실내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미싱 작업 특성상 설문조사에 시간 내기가 힘들기도 했고, 어렵게 대화 기회를 잡아 설명 드리니 중성화나 시에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불가능한 데도 조사에 관여하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고양

이나 잘 안 짓는 개는 소리로 알 수 없는데도 ‘그 집은 안 키운다’고 하거나, ‘그 집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해도 무시하고 벨 눌러보면 사람 나오는 등) 그 분들의 확신이 신기했고, 이런 경우에도 조사에 영향 받지 말라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 지역에 꼭 필요해 보이는 동물관련 사업

젊은 층이나 직장에 나가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가구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장인들이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편물 서비스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등록 자체에 대해 모르거나, 어디서 들었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D.

○ 느낀 점

사업이 시작되기 전 미리 현수막 혹은 플랜카드로 구역 사람들에게 미리 공지가 안 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사업 때에는 꼭 현수막을 미리 걸어 전수조사 기간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수막이 걸릴 시 복장을 한 전수조사 요원의 캐리커쳐와 반려동물(강아지나 고양이) 정도의 캐리커쳐는 표시 되어 있으면 합니다). 조사 시작전, 미리 공지되어 있었다면 조사위원에 대한 경계심이 좀 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설문조사 형식으로만 신청을 받고 하기에 는 응답률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요번 사업을 그냥 집집이 방문하여 호구 조사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 채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구역장께 허락을 받고 구역마다 사람 잘 다니는 곳에 간이 부스, 파라솔 설치를 해서 “설문조사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진짜 데려다 중성화며 등록도 해주는 구나” 를 알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 특이 했던 사례

3구역 242-160 할아버지 설문조사를 받던 중에 242-240 옆.옆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 동네 지역 주민들의 모든 반려동물 산책, 예방접종이며, 길 고양이 중성화까지 사비를 들여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3번의 재방문을 하였으나 중성화 시켰다는 것만 확인된 채 설문조사는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다른 구역 (중복으로 받으신 분) 244-118 가정형편이 어려워 저희 조사요원에게 서울시예 반려동물을 유기시키면 합법적으로 받아주냐고 물어보시던 분입니다. 중성화는 안되어 있었고 등록은 하셨지만, 등록을 괜히 했다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 유기를 시킬 확률은 적어 보이지만, 주인 분의 강아지가 노견이고 유기에 관해 계속 언급을 하셔서 걱정되어 사례로 듭니다. (중성화 신청 하셨습니다.)



○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등록이 되게끔 하는 사업.

시.지자체 보호소 혹은 정식적인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에서 선정된 사설보호소로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돈으로 혜택을 주면 안되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사료 값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반묘동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지원의 형식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다니는 골목 위에 스위스처럼 배변봉투를 설치하는 사업 (조사하면서 들었던 많은 민원 중 하나가 산책 시 그 지역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배변 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배변 봉투가 산책 루트에라도 있으면 치우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E.

○ 프로젝트 참여 후 개인적인 소감과 생각 : 들개 예방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반려의 개념이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리 잡혔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동물을 단순히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반려 동물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광동 지역은 노인분들의 거주 비율이 높다보니 더욱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 기억에 남는 특이한 사례들 : 이웃의 반려 동물에 대해 불편함(개짖는 소리 등)과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분들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몇 분이 저희에게 이웃집의 반려견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꼭 필요해 보이는 동물 관련 사업 : 불광 1동의 경우, 길고양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길고양이 TNR 사업과 인식 개선이 시급해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참여하였던 갈현 1동의 경우, 타 지역보다 유난히 유기견, 유기묘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갈현동 또한 불광1동과 마찬가지로 TNR 사업으로 개체수 조절이 시급해보였습니다. 특히, 길고양이 수가 많다보니 어떤 사람은 독극물을 놔서 길고양이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역 모두 길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TNR 사업이 꼭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유기묘,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길고양이들이 하나같이 다 마르고 건강이 안좋아보였습니다. 이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필요해보였습니다.

F.

○ 소감과 생각

소감을 간단하게 말하면 힘들지만 재밌었고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 저는 들개예방 중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고 들개를 예방하기 위해 들개들을 잡아서 중성화 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설문조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문조사라서 사람들 상대해야한다는 점에서 잠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주장이 강해서 타인의 말을 안 듣는 타입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니 같이 하시는 분들도 착하셨고 재밌으셨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타인에게 좋게 해주시고 힘내라며 간단한 간식도 챙겨주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방문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특이사항이 있던 사례들

가장 기억이 남는 사례는 노인 두 분이서 강아지를 키우시던 집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자매였고 그 중 언니 되시는 분은 병에 걸리셔서 제대로 걸기도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한 마리는 언니 분께서 병에 걸리기 전에 키우시던 강아지였고 다른 한 마리는 유기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견은 나이도 많고 병도 가진 노견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견주께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유기견을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키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매일 산책도 해주시고 집도 깔끔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우 놀라웠고 그 분들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 이 지역에 꼭 필요해 보이는 동물관련 사업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위 사례를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성화 지원 사업뿐 아니라 생활을 하며 강아지를 키우기 힘들으신 분들에게 사료, 간식 등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원래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강아지를 키웠으나 병에 걸려 키우기 힘들으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

나 노인이 되어 키우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료와 같은 간단한 용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를 유기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강아지를 키우는 형편이 갑자기 안 되었고 누군가에게 맡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강아지도 키울 환경을 제공해주고 유기견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G.

○ 조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 장시간 부재중인 집이 많았다. 따라서 반려동물들이 적정한 보듬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대상인 동물이 예상외로 적었다

- 방문객에 대한 경계가 심했다

- 중성화에 대한 인식이 예상보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 개를 위해 수술을 마다한다는 생각을 바꾸기에 시,공간적인 제약(집 현관서 잠깐나누는 대화)이 컸다.

○ 특이사례

- 방문초반에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중성화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들었고, 공짜가 말이 되냐며 거부하던 주민이 중성화의 잇점을 설명하고 무료사업의 의미에 대해 알리는 과정에 마음을 돌리고 수술신청서를 작성하셨을 때 기뻐고 유기농 쌈채소를 주시며 개는 고맙다고 못하니 우리가 대신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하셨을 때 보람이 생겼다.

- 활동 중에 고양이가 집을 나와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인근에 문이 열린 집 주인에게 알려 찾아주었고 즉석에서 동물등록 신청서 받음

○ 지역에 긴요한 동물사업

- 찾아가는 동물사업(진료 및 영양상담 내장등록 서비스 등)

특히 동물들의 주식인 사료를 초저가제품을 먹이는 보호자가 많아서 이에 대한 상담 및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 동물보호자의 커뮤니티공간

H.

○ 조사하면서 느낀 점 (개인적)

처음엔 동물등록(내장)과 중성화 수술이 개인적 윤리 가치관 때문에 불편 했지만, 조사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아이디어임을 느꼈다.

조사원 임무를 끝낸 후에도 누가 묻지 않는다면, 내장형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에 대해 홍보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아이를 입양할 때 부모 자격 요건이 있듯,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도 입양하려는 자의 자격을 따져서 입양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의 내장 칩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DNA 실명제를 이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기억에 남는 사례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쳐서 길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였다. 키우시는 분은 고양이가 집 근처에서 놀고 멀리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이 혼자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온다는 것에 놀랐다. 동물등록 목걸이는 잃어버리고 풀어 놨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다.

○ 꼭 필요해 보이는 동물 관련 사업

길고양이 또는 유기 강아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광고나 도움을 주는 법을 홍보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의 무의식적 반복 학습

맡은 구역은 불광동인데, 운 좋게 갈현동도 조사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있었다. 불광동보다 갈현동엔 길고양이들이 많고 인간을 경계하는 정도가 낮았다. 설문 조사할 때 여쭙어보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주민들이 많다고 했고 그것에 불만을 느낀 주민들도 많았다. 길고양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을 옮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 홍보나 광고를 통해 길고양이·강아지들의 인식을 바꾸고 도움을 주는 정보를 반복 학습하는 사업이 있다면 대다수 사람의 기초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I.

처음에 조사 시작할 때 보면 솔직히 좀 쉽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던 것 같아요.

조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일단 집에 계신 분을 만난다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걸 알았고, 정말 저도 되도록이면 길거리나 조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방문했을 때 어느 집이든 꺼려하시기도 하는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집은 두 분류로 나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들으시면 그런 게 있냐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과 반면에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걸 사람이 억지로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작은 애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애들은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중성화를 알리는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라는 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으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이 정확히 알고계시고 느끼셔야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성화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갈현동에 지원 나갔을 때는 불광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제일 다른 점은 일단 길고양이들이 불광지역 보다 엄청 많다는 점이에요.

주민분들께서 곳곳에 밥을 주고 계시는 것 같긴한데 너무 많아서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갈현동은 길고양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됐고,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께서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의 급식소에 사료랑 같이 먹는 피임약을 넣으면 어떠냐고 하는 의견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다른 조사원분들과도 대화했을 때 지금은 약간 유기견 예방 같이 되어있으니까 좀 더 들개예방 또는 들개가 된 아이들의 사업으로 점차 확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겠지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J.

○ 조사를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 및 생각

재개발지구의 열악한 환경과 그에 수반되는 낮은 동물환경을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지만 주민들에게서 생각하였던 기준치 이상의 동물에 대한 환경과 주민들의 애정 및 정성을 발견 할 수 있었음.

○ 기억에 남거나 특이사항이 있던 사례들

조사차 방문했던 주택 중 할아버지 한분의 독거주택이 있었으며 반려견이 한 마리 존재. 할머니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아직 정신이 없고 경황도 없기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답하시며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셨음. 설문지 작성 중 애견 예방접종이나 미용 등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해주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으며 실제로 목욕 등 관리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밥은 잘 챙겨주셨으며 반려동물 또한 견주를 잘 따랐음.

이러한 독거노인 혹은 노인가정의 견주분들의 자의라기보다 여건상 애견에 대한 질 좋은 생활환경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경우는 동물보다는 오히려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에 대한 애정과 정성을 되찾을 수 있는 독거노인들의 생활지원이 필요해 보임. 노인정 등에서 애견 혹은 애묘와 함께하는 애견장기자랑 프로그램 등 독거노인분들로 하여금 반려동물과 함께 다시금 사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의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도 기를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좋을 듯함.

○ 조사지역에 꼭 필요해 보이는 동물관련 사업

불광5지역 : 노인분들 중 동물등록제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심에 따라 홍보가 필요해 보임.

갈현6지역(파견지원) : 길고양이가 매우 많으며 주민들 또한 길고양이를 반기지 않는 눈치임에 따라 TNR사업이 필요해 보임.



K.

은평구 불광동 재개발 지역을 조사하면서,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마당이 없는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이다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도 유기 가능성이 있는 대형견이 아닌 품종인 소형견 위주였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유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기동물 방지 효과보다는 중성화 수술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가구임에도 중성화비를 지원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반려가구 중에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아는 가구가 생각보다 적었고, 이를 알리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L.

○ 조사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과 생각

이번 조사사업에 참여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두는 가정들과 그렇지 않은 가정 모두가 지구에 함께 사는 타 생명체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끊긴 문명사회에 살며 그런 것들을 자연스레 잃은 듯 합니다. 생명존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며 좋은 파트너와 팀장님을 맞아 사업에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지역에 꼭 필요해 보이는 동물관련 사업

이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간과 지구에 더불어 사는 생명체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생명교육이 필요해 보였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보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

○ Personal review

서울시와 카라의 제휴로 북한산 일대 재개발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은 불광1동 재개발 지역으로 불광역과 가까운 구역이었는데 조사 대상 집들은 대부분 중소형 빌라로 특별히 중성화 지원사업을 해줘야 할 만큼 열악한 가정은 없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 들개화 될 만한 대형 견종이 있는 집은 한 집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백구 어린이, 마당개. 어려서 아직 중성화 전).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소형 빌라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 개나 고양이(대략 20[개]:1[냥] 비율)를 키우고 있었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이미 중성화 수술을 해준 가구가 많았습니다.

애초의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들이 (최소한 제가 돌았던 구역엔) 더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 갈현지구에 지원 나가보니 열악하더군요. 갈현지역은 마지막 하루만 돌았는데도 설문 조사를 꽤 받았습니다. 좀 더 이쪽에 일찍 지원 나왔음 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마지막 날 끝나고 전철역으로 함께 걸어가던 요원들끼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갈현지역 조사요원들이 열악한 곳을 부족한 인력으로 도느라 서로 마찰과 견제, 감시가 다소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미리 조사대상 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지원 대상 범위와 투입 인력 설정에 좀 더 디테일한 관찰과 배정이 되었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아깽이 입양과 그 후폭풍....ㅠㅠ)으로 전수조사요원 활동에 차질이 크게 생길 뻔 했는데 배려해주시고 일처리 도와주신 김혜란 이사님, 김영환 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 표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특이사항

중성화 수술 신청서를 받은 집 중 노령견이 많았습니다. 너무 나이 들어서 눈도 보이지 않는 개도 있었는데, 조사요원 교육 받을 때 카라 수의사 쌤께서 노령견도 수술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일단 신청서 받긴 했는데 수술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갈현지구에서 신청서 받은 아이(푸들, 수컷, 15세)는 양 눈이 모두 백태가 가득 차 있는 눈 먼 개 입니다. 집안을 폴폴 거리며 겨우 돌

아다니는 아이인데 집 밖 낫선 곳에 데려가 수술시키는 걸 견딜 수 있을 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갈현지구에서 참새가 에폭시 페인트칠 범벅이 돼서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는데 일단 조사요원 중 한 분이 집이 근처라 집에 구조해 놓고 같이 있던 요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다 마침 조사요원 중 한 분이 새를 구조한 적이 있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조류보호센터에 연락하면 차가 와서 구조해 간다고 하더군요. 전수조사 활동하고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동물보호단체 카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 야산 근처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동물 구조 활동에 폭 넓은 대응 요령 매뉴얼 같은 것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 지역 사업 추천

불광지구는 지역주민도 조사를 돌았던 제가 보아도 크게 무엇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현지구는 산동네라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일단 길냥이가 너무 많습니다. 길냥이 TNR 사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길냥이들과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봤는데, 설문조사 받은 집에서 길냥이들이 화단 텃밭에 들어와 작물을 망쳐 놓는다고 욕을 하시며 옆집도 지붕 전체를 아예 비닐 천막으로 감싸버렸다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을 비닐 천막으로 둘러싼 광경은 처음 보는 지라 깜놀..... (그 집 여름에 찌 죽을 듯).

길냥이들 상태도 안 좋아 보이는 걸 여럿 봤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 길냥이들을 싫어하니 여러 가지 공격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체수가 많아서 자기들끼리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설문조사 응해준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름만 되면 개장수가 개나 고양이 산다며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갈현지역은 동물등록제에 대해 밀착 홍보하여 등록이 100% 가까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갈현지역 1) 길냥이 중성화 사업 및 치료, 2) 동물등록의무제 홍보 확대 및 등록률 100% 도전. 나아가 3) 길냥이에게 피해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고 동시에 4) 동물권 인식 전환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N.

먼저 금번 조사에 참여할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애 최초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마음엔 많은 것을 새겼지만 글로 뭔가를 표현하려니 어렵기만 합니다.

첫 날엔 “오늘을 어찌하나?”에서 팀을 이룬 이00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고,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서 진행하게 된 조사활동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선물했습니다.

간혹 설문대상이 되신 분들의 경계하는 배척이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도 뿌듯한 기쁨으로 남아있습니다.

첫 조사를 해준 유기견을 구조하여 함께하고 있는 가족분들과 여러번의 방문으로 어렵게 만나뵈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의 중성화와 등록을 신청하시며 너무도 고마워 해주신 말티아이의 보호자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로 중성화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던 중 저의 끈질긴 방문으로 어렵게 만나 아이의 중성화를 신청하시며 진정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사일 갈현동에서 만난 부부의 이야기도 다시 한 번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구요.

한 아이는 유기될 뻔한 아이를 다른 한 아이 역시 길에 버려졌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신다고 하시며 제발 동물보호법이 강하게 개정되어 버려지는 아이가 없으면 좋겠다고, 이 아이들을 입양한 후 가족간 화목도 이루어진 듯 느껴져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여러 일들로 보아 저소득층에게 반려동물이 있을 때 중성화는 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하는 경우 일정기간 혹은 일정 비용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뜻하지 않는 반려동물들과의 이별 및 교배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도 있는 듯 했는데 이것은 꾸준한 홍보와 서로간 배려로 줄여 나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이유라도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아픔이 없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가 무르익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두서없는 전수조사원으로서의 일주일간의 느낌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제게 귀한 경험을 하게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O.

방문했던 집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불광동에 거주하고 있던 집입니다. 유기 동물들이 불쌍해서 집에 데려오다 보니 반려동물의 수가 대략 15마리인 집이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중성화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다고 말하니까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역시 두분이 그 많은 동물들을 감당하고 수술시키기에는 비용 부담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유기견을 여러 마리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앞을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고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집이었는데 TV에 나오고 단체에서 집을 지어주고 키우던 강아지들을 입양 보내면서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마리를 자력으로 키운 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입양은 안 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셔서 좁은 집에 살고 있을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걱정되는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길고양이의 TNR사업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동네에 동물 관련 문제가 있는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것이 길고양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광동이던 갈현동이던 설문조사를 다니면서 길고양이를 참 많이 봤습니다. 다행히도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는 캣맘이 불광동에도, 갈현동에도 있었지만 중성화가 되어있는 고양이는 5마리 중 1마리 꼴이었습니다.

카라 전수조사 알바를 하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보호, 복지에 관심이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함께 다니고 만나면서 각자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몰랐던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P.

○ 조사를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과 생각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는 경제적인 부분보다 인식과 교육에 관한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별다른 이유도 없이 중성화 수술이나 동물등록제에 반감부터 표하며 문전박대하거나 설명을 듣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견주를 보며 동물 보호에 관한 법제화나 교육적 측면에 대한 필요성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인식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이러한 전수조사가 있을 시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미리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가가호호 조사원이 방문할 것이라고 고지한다면 좀 더 우호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바깥 대문이 닫혀있으면 아예 출입이 불가능해서 며칠에 걸쳐 방문한 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도 있었고, 집주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분께 메모를 남겨 홍보물을 놓고 갔더니 며칠 뒤에는 설문에 응해주셨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 방문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특이사항이 있던 사례들

동물등록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동물등록제에 관해 아예 모르거나 어렵듯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절차를 몰라서 그냥 미루고 있던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7세의 노견을 키우고 계신 견주(갈현동)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강아지를 굳이 등록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의문을 표하며 없는 척 하면 그만이지 않냐고 말하셨습니다. 이러한 견주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년층 견주는 펫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을 당시 중성화수술을 하면 강아지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중성화수술을 권하기에 했고, 그 후에 귓병이 걸렸다고 자책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높은 연령의 분들은 펫숍 주인을 전문가라고 믿고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 것으로 믿는 경우가 있으니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지역에 꼭 필요해 보이는 동물관련 사업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유기동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크지 않고, 키우지 않는 사람은 아예 관심가질 생각도 없거나, 골목에 지키고 앉아 “그럴 돈 있으면 사람한테나 쓰라!” 며 소리를 지르고 아예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인식개선 캠페인 혹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주민도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끄럽다는 부정적 의견이었고,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동에서 관리한다면 문제점이 줄어들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Q.

○ 소감 및 생각

참여 당시에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조사지역 안에 실제 주민들 중에서는 중성화나 동물등록제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홍보나 인식이 부족하다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등록을 안 한다고 하거나, 계속 다녔던 병원인데 한번도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한 번씩 병원을 가게 되는 것이니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특이사항 및 사례

불광동, 갈현동 지역일대는 산이 많아 이미 들개화 되어있는 몇몇 아이들을 만났는데 들개라고 하기에는 너무 순한 유기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근처에 버려지는 개들이 많다 보니 제 구역의 한 집은 그런 유기견들을 하나 둘씩 데려와 20마리 넘게 키우는 있었으며, 이번에 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경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집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사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 지역에 필요해 보이는 동물관련 사업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넣는 부분이 길고양이였습니다. 실제 TNR되지 않은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지역에서 캣맘들과 지역에서 지정받은 동물병원과의 문제도 많다고 하니 확인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 【중계본동 백사마을】



A

104 마을에서 10년 전 쯤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삶을 위해 다니다 보니 길에 나다니는 개들은  
저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를 하다 보니 15년 전 처음으로 키운 미니핀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실패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나 죄책감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개나 들고양이 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며, 사랑 받아야하며,  
동물에 대한 복지도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행복은 어떠한 복지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

104마을은 가구의 반 이상이 비어있는 데다가 연세가 많으시고, 사람이 생활하기에도 열악한 환경이라 그런지 동물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예전 관습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로 인해 동물이 지내는 환경요소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사료챙겨 주는 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 더불어, 동물 등록법이나 중성화수술의 편견적인 오해도 많았다. 특히, 어르신이 많은 탓에 강아지보다는 길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배타적이신 것 같다. 고양이가 사라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쥐떼들의 습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옛부터 내려오는 고양이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갖고 계신 듯하다.

추후방향은 글로 표현하는 방법 보다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삶의 잇점과 동물등록, 중성화수술의 필요성, 동물이 지내는 환경의 중요성 등을 비디오나 강의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C.

이번에 카라와 서울시가 같이하는 들개 예방 전수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생명이기에 소중이 다뤄주고 더욱이 말할 수 없는 동물이기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만큼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조사한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단지 뱀을 쫓기 위해, 집을 지키기 위해 등 사람의 이익으로만 사용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두번째는 사람에 대한 복지와, 동물에 대한 복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사를 다니면서 서울시에서 시간이 남나, 돈이 남아 이런걸 하느냐... 는 식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또한 사람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동물복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말하신 분들도 많았다. 힘든 사람도 많다. 세상에는 아직 보호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많으며 우리나라 또한 빈부격차로 인해 제대로 된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지구안에는 사람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식물과 동물 사람이 어우러져 있으며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으나 동물복지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세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재개발지역이 많을 것인데 그에 따라 들개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주인이 일주일에 한번만 와서 먹이를 주는 집, 그저 재개발이 되면 개는 놓고 가겠다고 당연시 말하는 집,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집 등 재개발만 된다면 개는 놓고 갈 것이라고 공통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활동과는 거리가 좀 멀어 아쉬웠다는 점이다. 들개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인 줄 알았지만 들개가 될 수 있고 발생될 수 있는 지역으로가 발생되지 않게 중성화 수술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받아오는 작업이라 의미 있는 일이면서도 좀 더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에 시작점이 될 수 있어서 배운 점도 많이 있고 느낀 것도 많은 활동이었다.

D.

이번 활동에 참여하면서 들개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 같다.

강아지들의 질병예방에도 중성화수술이 도움이 되지만 거리를 떠도는 들개들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백사마을에서 설문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집을 방문하였는데 강아지등록과 중성화 수술에 대해 아예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아신다고 하시더라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고, 중성화 수술은 강아지의 건강 뿐 아니라 들개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소수의 분들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관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사람들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가정을 방문하다보니 강아지를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는 집, 심지어는 쓰레기더미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끼니도 제때 챙겨주지 않은 채 방치하는 집도 볼 수 있었다. 그런 강아지들은 커다란 쇠덩이 목줄을 착용한 채 줄도 짧게 매져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어있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러는 반면 집 안에서 누가 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살핌으로 귀하게 자란 강아지들도 있었다. 그런 가정의 주인들은 강아지를 단지 키우는 애완동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와 같은 동물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물복지에 좀 더 깨어있는 시각을 가져서 더 이상의 학대나 유기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E.

우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세계’라고 표현 하고 싶다. 동물을 너무 사랑하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종종 주는 것 외에는 없었다. 좋은 기회가 되어 백사마을에서 동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즐겁게 임할 수 있었다.

백사마을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이사 가면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활동 내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건 챙겨간 밥을 조금 주는 것 밖에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

다양한 집들을 방문해 사람들을 마주치다보니 동물에 대한 생각이 각자 많이 다름을 느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 들 중에서도 중성화수술이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보다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음을 실감했다. 질문에 응답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동네 길고양이들이 싫어서 먹이에 쥐약을 섞어서 준다는 분을 만났던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 적어도 죽이는 행동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명을 죽이는 것에서 이해할 수 없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동물을 싫어하며 인상을 찡그리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때문에 이번 활동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처음으로 하게 된 동물지원사업이 앞으로도 내가 동물복지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어 좋았다. 활동하면서 다양한 조사원 분들도 만나 배울 점도 많았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F.

원래 동물을 좋아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못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이번 들개예방사업에 참여하였다. 처음 사전교육을 할 때부터 동물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처음이어서 신기하고 새로웠다.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뿐 아니라 조사의 중요성과 조사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셔서 들개예방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조사자들은 백사마을에 대해 잘 아는 분이거나, 동물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어서 혹시라도 내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참여하였다. 조사자의 대부분이 동물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금방 공감대를 형성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백사마을은 재개발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없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때문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강아지를 산책시키지 않고 묶어두고 기르는 집이 많았고 중성화를 시켜야 하는 이유와 동물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책 뿐 아니라 목욕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겐 착했지만 동물에게도 착하게 대하는 사람은 드물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동물을 생명체라고 생각하기 보단 인간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나는 이 마을이 언젠가 본인의 반려동물 뿐 아니라 길가에 동물들도 사랑하고 함께 공존하기를 기대하고,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삼삼오오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을 생각해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공존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강아지를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 마을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무사히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 앞으로도 백사마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내가 상상한 바가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G.

백사마을 저희담당 구역은 빈집이 많았고 개를 기르는 집은 거의 식용으로 기르고 계셨어요.

이번 달 안으로 잡아드시겠다 분을 간신히 설득시켜 중성화수술 동의를 받고 기르시도록 유도하였지만 사실 그 설득이란 게 법을 빌미로 겁을 줌 드린거예요.

등록을 안 하면 벌금액수가 크다 개를 함부로 잡아먹으면 동물보호법상 벌받는다  
ㅠㅠ 백사마을에 대한 제 견해는 여기는 문명이 들어오지 않은 오지에 선교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하는 곳이고, 동물복지란 단어와 전혀 상관없는 아니 동물복지는 지나가는 개한테 쉼버려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없는 살림에 가족같이 정성들여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런 분들은 소수지요.

그곳에 살지도 않으면서 가끔 들러 잔반에 저급사료 섞어주고 가는 견주도 있었어요. 암담하긴 하지만 백사마을이 동물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조금씩이라도 변화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

---

일련번호

**중성화수술 지원을 위한 반려동물 보호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은평구와 노원구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성화 수술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해당 지역 주민께서 아래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중성화 수술을 신청하시면 동물등록과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귀하의 반려동물의 건강도 지키고 사회에 필요한 동물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정지역>  
 -갈현1지역(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불광5지역(은평구 불광동 245번지 일대)  
 -중계본동(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2017년 5월  
 서울시 동물보호과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응답자 기초사항

SQ1	지정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SQ2	동물보호자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SQ3	거주 지역	( )구	( )동	( )지역			

**Part A. 보호자 일반사항**

- A1. 귀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 선택)
- ①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
  - ② 예쁘고 귀여워서
  - ③ 외로워서
  - ④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
  - ⑤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 ⑥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의사로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A2. 귀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 3개 선택)
- ①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 ②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
  - ③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간접구조)
  - ④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
  - ⑤ 기타(\_\_\_\_\_)

Part A 반려동물 특성

B1. 반려동물의 특성에 체크(✓) 또는 기록해 주십시오.

문항	구분(개: )	세부사항
종	품종( ) / 믹스( )	총마리수 ( )
성별/연령	암 / 수 / 연령	질병여부 X / O ( )
급식	①간-습사로 ②잔반 ③기타( )	월비용 ( )만원
예방접종	①접종 ( )회 ②미접종 ③모름	미접종이유( )
미용	①미용실 1년( )회 ②자가미용 ③안함	회당 ( )만원
동물등록	①등록 ②미등록(≠ B5)	내장형 / 외장형 / 인식표
중성화 수술	①수술 함 ②수술 하지 않음	수술비 ( )만원
기타특성		

문항	구분(고양이: )	세부사항
종	품종( ) / 코숏( )	총마리수 ( )
성별/연령	암 / 수 / 연령	질병여부 X / O ( )
급식	①간-습사로 ②기타( )	월비용 ( )만원
예방접종	①접종 ( )회 ②미접종 ③모름	미접종 이유( )
미용	①미용실 1년( )회 ②자가미용 ③안함	회당 ( )만원
동물등록	①등록 ②미등록	내장형 / 외장형 / 인식표
중성화 수술	①수술 함 ②수술 하지 않음	수술비 ( )만원
기타특성		

\* 가능한 표 하나에 동물 한 마리 특성 기입. 칸이 부족할 경우 조사원이 적절하게 기록

B2. 중성화 수술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설문조사 후 수술신청서 서명받기)
- ② 없다 (⇒ B3)
- ③ 이미 중성화 수술을 함 (⇒ B4)

B3. (B2의 ②번 응답자만)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싶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 ②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다
- ③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 ④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 ⑤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 ⑥ 기타

B4. (B2의 ③번 응답자만) 중성화 수술을 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더 이상 새끼를 낳게 할 수 없어서(키우기 어려움, 모견 건강)
- ②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 ③ 다른 질병을 치료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었다
- ④ 발정기 때 행동문제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 ⑤ 유기동물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 ⑥ 기타

B5.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응답자만)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사항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 ② 등록하는 것이 귀찮다
- ③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에 반대한다
- ④ 기타 ( )

#### Part C.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정책에 대해

C1.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다소 높은 수준이다
- ③ 비슷한 수준이다
- ④ 다소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C2.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 ②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교육을 넣어야 한다
- ③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 ④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 ⑤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 ⑥ 기타( )

C3.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사람을 더 도와야 한다/정부가 관여할 문제 아니다/잘 이루어지고 있다)
- ④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 ⑤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 ⑥ 기타( )

C4.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십시오.

( )

C5.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와 바라시는 바를 말씀해주시십시오.

( )

#### Part D. 통계 분류

DQ1. 귀하의 직업은?

- ① 농/임/수산광업
- ② 지영업
- ③ 판매서비스직
- ④ 기능/숙련공
- ⑤ 일반 직업직
- ⑥ 사무/기술직
- ⑦ 경영/관리직
- ⑧ 전문/자유직
- ⑨ 전업주부
- ⑩ 학생
- ⑪ 무직(취업준비)
- ⑫ NGO
- ⑬ 은퇴
- ⑭ 기타 ( )

DQ2. 거주하고 계신 주택형태?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빌라/다세대 주택
- ④ 기타(오피스텔, 상가 내 거주 등)

DQ3. 귀하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99만원
- ③ 200-299만원
- ④ 300-399만원
- ⑤ 400-499만원
- ⑥ 500-599만원
- ⑦ 600-699만원
- ⑧ 700만원 이상

DQ4.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분류에 해당하십니까?

- ① 1인 세대(혼자거주)
- ② 1세대 세대(부부만 거주)
- ③ 2세대 세대(부모자녀 거주)
- ④ 3세대 세대(부모자녀손주 거주)
- ⑤ 기타 ( )

## ○ 홍보물

### 지원 내용

**무료 지원**  
동물 등록(비용 1만) / 건강 검진 / 중성화 수술

### 지원 절차

\* 보호자는 수술종류에 따른 비용과 의료비용(수술)은 자체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수조사 참여**

STEP01  
신원조사(개/고양이)  
- 전수조사 참여

**수술종류서 작성**

STEP02  
보호자  
수술종류서 작성

**병원이동 8일**

STEP03  
중성화 수술  
예약 가능

**중성화 수술**

STEP04  
건강관리 동물병원  
(중성화 수술 전문)  
보호자에게 알려감

**목표**

STEP05  
등록 수  
보호자에게 알려감

### 선정지역

<b>입원 1지역</b> 관동구 일원동 300만 원 이하	<b>입원 5지역</b> 관동구 일원동 340만 원 이하	<b>역시마을</b> 중성화 수술 전문 30~35일대
---------------------------------------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www.seoul.go.kr | TEL 02-3121764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센터  
www.seoul.go.kr | TEL 02-3482-0999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내 동물 건강도 지키고 유기동물 입양을 도와주는 중성화 수술을 무료로 시행합니다."

중성화 수술 전문 동물병원

100만 원 이하  
30~35일대

### 중성화 수술은 최고의 선물

#### 중성화 수술이 무엇인가요?

수컷의 고환을 제거하거나 암컷의 난소 또는 난관의 자궁을 제거하여 출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 생식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성폭력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 |                |              |
|----------------|--------------|
| · 첫 째물 이전에 중성화 | · 암컷 예방      |
| · 수술할 경우 유산예방  | · 암에 의한 예방   |
| · 90% 예방       | · 고령과 관련된 예방 |
| · 자궁수축증 예방     | · 암 예방       |

#### 위험하지는 않나요?

건강한 동물에게는 안전한 수술입니다.

#### 고양이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발정기에 접을 나가 시끄러워하거나, 야생화되거나, 한지 않은 임신할 가능성이 커보여 높아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끼도 보고 싶는데 자연스럽게 키우는 게 좋지 않나요?

현재 반려 가구 중에 비대 반려동물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매년 유기 동물 약 4만 마리가 건강원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에서 죽습니다. 새끼를 동물원 키우려는 사육자에게 유기 동물을 건강이유로 기증을 받으면 양육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동물등록은 사랑의 끈

#### 동물등록이란?

반려견을 포함한 경우 산책하게 보호자를 찾고, 동물 질병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행

과량출생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에 귀양 키움에 방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미등록 시 30만 원 과태료
- 반강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대형 기관에서 처리 가능 (소유자 변경, 주소, 판매처, 유증, 사망 등)

#### 중성화 수술과 함께 무료로 진행

동물 병원을 찾았거나, 대형 기관을 찾기 어려워서, 미등록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중성화 수술을 신청하실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도 동물등록을 해드립니다.